

제 1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글을 이해한다는 것은 문장에 제시된 정보를 차례대로 기억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독자는 각 문장이 앞선 문장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파악하면서 글의 내용을 하나의 구조로 조직해야 한다. 이처럼 문장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글을 이해하는 방식을 관계 중심 읽기라고 할 수 있다. 관계 중심 읽기를 하는 독자는 새로운 문장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독립된 정보로 받아들이기보다, 앞에서 제시된 개념을 설명하거나 구체화하거나 제한하는 정보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글의 관계를 파악할 때 우선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정의, 비교, 대조, 인과이다. 정의는 어떤 개념이 무엇이며 어디까지를 포함하는지를 밝혀 개념의 경계를 정한다. 비교는 둘 이상의 대상이 공유하는 속성을 같은 기준에서 확인하게 하고, 대조는 그 기준에서 대상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드러낸다. 따라서 비교와 대조를 함께 파악하면 서로 비슷한 개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정리할 수 있다. 인과는 어떤 원인이나 조건이 특정한 과정에 작용하여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를 보여 준다. 독자는 원인과 결과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이에 어떤 과정이 놓이는지도 살펴야 한다.

필자는 글의 핵심 내용을 한 번만 제시하지 않고 표현이나 설명의 수준을 바꾸어 다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앞에서 정의한 개념을 뒤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 주거나, 앞에서 설명한 인과 관계의 결과를 뒤에서 더 일반적인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때 뒤의 문장은 앞 문장과 완전히 별개의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앞의 내용을 다른 말이나 다른 수준으로 다시 나타내는 재진술로 기능한다. 독자가 이러한 관계를 알아차리면 여러 문장을 각각 새로운 정보로 기억하지 않고 하나의 핵심 판단 아래 묶을 수 있다. 그 결과 기억해야 할 독립적인 정보 단위가 줄어들고, 이후에 어떤 설명이 이어질지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 독해가 원활해진다.

그러나 문장에 비슷한 표현이 있다고 해서 모두 재진술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따라서’, ‘반면’, ‘즉’과 같은 접속 표현이 있다고 해서 그 관계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독자는 두 문장이 같은 대상과 범위를 다루는지, 앞 문장의 조건이 뒤 문장에서도 유지되는지, 생략된 인과 과정이 글 안에 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근거 없이 문장들을 연결하면 서로 다른 내용을 같은 의미로 오해하거나 단순한 시간적 나열을 인과 관계로 잘못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관계 중심 읽기란 문장들을 무조건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글에 제시된 근거를 바탕으로 적절한 관계를 설정하고 필요할 때 그 관계를 수정하는 읽기이다.

1.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관계 중심 읽기를 하는 독자는 새로운 문장이 앞의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이어 가는지를 확인한다.
- ② 정의를 파악하면 개념이 포함하는 대상과 다른 개념과의 경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③ 비교와 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을 같은 기준에 놓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게 한다.
- ④ 재진술을 인식하면 각 문장을 서로 독립된 새로운 판단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기억해야 할 정보가 늘어난다.
- ⑤ 문장 사이의 관계는 접속 표현만이 아니라 대상 범위 조건과 같은 글의 근거를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한다.

2. [A]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재진술은 앞 문장과 동일한 어휘가 반복될 때에만 성립한다.
- ② 설명의 추상적 수준이 달라진 두 문장은 동일한 핵심 내용을 나타낼 수 없다.
- ③ 재진술된 문장은 앞에서 이미 제시된 내용이므로 읽지 않아도 글의 전체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 ④ 관계 중심 읽기를 하면 필자가 뒤에서 사용할 문장의 표현까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 ⑤ 재진술을 인식하면 여러 문장의 내용을 하나의 핵심 판단으로 압축하여 이해할 수 있다.

3.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한 학생이 다음 글을 읽으며 문장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정교화는 새로 얻은 정보를 기존 지식과 관련지어 그 의미를 확장하는 처리이다. ㉡단순 반복이 새 정보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주력하는 반면, 정교화는 새 정보와 기존 지식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 ㉢이 때문에 정교화된 정보에는 그 정보를 떠올릴 수 있는 단서가 더 많이 형성된다. ㉣즉, 기존 지식과 연결된 정보는 나중에 그것을 떠올릴 수 있는 경로가 많아지는 것이다.

- ① ㉠은 ‘정교화’의 의미와 개념적 경계를 제시하는 정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은 새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라는 동일한 기준에서 단순 반복과 정교화를 비교하고 대조한 것이다.
- ③ ㉢의 ‘이 때문에’가 가리키는 원인은 ㉡ 안에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앞 문장인 ㉠과 연결할 필요가 없다.
- ④ ㉣은 ㉢의 ‘단서가 더 많이 형성된다’는 결과를 ‘떠올릴 수 있는 경로가 많아진다’로 바꾸어 재진술한 것이다.
- ⑤ ㉡~㉣을 정의-대조-인과-재진술의 관계로 연결하면 여러 문장을 하나의 설명 구조로 압축할 수 있다.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떤 대상이 실제로 지닌 속성 중에는 그 대상이 존재하는 한 잃을 수 없는 본질적 속성과, 달리 지닐 수도 있었던 우연적 속성이 있다. 여기서 실제와 다른 어떤 상황을 ‘나에게 가능했던 삶’이라고 하려면, 그 삶의 주체가 실제의 나와 수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수적 동일성은 두 대상의 특징이 서로 비슷하다는 뜻이 아니라, 둘이 하나의 동일한 대상이라는 뜻이다. 기원 본질주의는 내가 실제로 생겨난 기원이 나의 수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데 필요한 본질적 속성이라고 본다.

삶의 경험은 개인의 정체성을 고유하게 정하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 나는 실제와 다른 학교를 다니거나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으므로, 경험의 변화가 곧 나의 소멸을 뜻하지는 않는다. 또한 다른 사람이 우연히 나와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유전자도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 구성이 같아도 서로 다른 개인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질적으로 같은 특징을 공유한다는 것만으로 두 존재의 수적 동일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크립키는 한 개인이 실제와 다른 부모, 더 정확히는 다른 정자와 난자에서 유래할 수 없다고 보았다.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생긴 최초의 세포를 접합자라 하고, 내가 실제로 유래한 접합자를 ‘알파’라고 하자. 기원 본질주의에 따르면 나는 알파에서 유래한 채 경험이나 성격이 실제와 다른 삶을 살 수는 있지만, 알파와 수적으로 다른 접합자에서 유래한 존재일 수는 없다. 다른 접합자에서 나와 매우 비슷한 사람이 생기더라도 그는 질적으로 비슷한 다른 사람일 뿐이다.

이 주장을 논증하려면 세 전제를 구별해야 한다. 첫째, 알파와 다른 접합자인 베타가 한 가능 상황에서 각각 한 인물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를 공동 가능성 전제라고 하자. 둘째, 이 상황에서 알파와 베타로부터 생긴 두 인물은 수적으로 구별된다. 이를 비동일성 전제라고 하자. 셋째, 특정 접합자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은 가능한 상황들을 가로질러 그 접합자에서 생긴 인물을 하나의 개인으로 식별하기에 충분하다. 이를 기원 충분성 전제라고 하자. 실제의 나는 알파에서 유래한다. 이제 내가 베타에서도 유래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기원 충분성 전제에 따라 공동 가능 상황에서 알파로부터 생긴 인물과 베타로부터 생긴 인물은 모두 나와 동일해야 한다. 그러면 수적으로 구별된 두 인물이 서로 동일하다는 결론이 나오므로 둘째 전제와 모순된다. 따라서 내가 베타에서 유래할 수 있다는 가정을 버려야 한다.

(나)

기원 본질주의의 주장과 기원 충분성 전제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기원 본질주의는 어떤 가능한 인물이 나와 동일하다면 그 인물은 알파에서 유래해야 한다고 본다. 곧 알파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나이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본다. 반면 기원 충분성 전제는 알파에서 유래한 가능한 인물이라면 그 인물이 나와 동일하다고 본다. 곧 알파 기원을 나를 식별하는 충분조건으로 본다. 따라서 기원 충분성은 기원이 본질적이라는 주장보다 강하다.

기원 충분성 전제는 알파가 가능한 상황들을 가로질러 오직

나만을 식별하는 형이상학적으로 고유한 기원임을 요구한다. 어떤 기원이 형이상학적으로 고유하다는 것은 실제 세계에서 우연히 한 존재에게만 귀속된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것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수적으로 다른 존재의 기원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기원을 구성 물질과 그 배열로 개별화하면 이러한 고유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알파가 배아로 발달하면서 원래의 원자들을 내보낸 뒤, 그 원자들이 훗날 모두 회수되어 알파의 최초 상태와 같은 배열을 지닌 별개의 접합자 ‘감마’를 이룬다고 가정해 보자. 알파와 감마는 같은 원자와 배열을 지니지만 서로 다른 시점에 형성된 수적으로 다른 접합자이다. 만약 같은 물질과 배열에서 유래했다는 사실만으로 한 개인의 정체성이 충분히 결정된다면, 알파에서 생긴 아이와 감마에서 생긴 아이가 모두 나라는 부당한 결론이 나온다. 이를 접합자 재활용 문제라고 한다.

그렇다고 재활용 문제가 곧 내가 감마에서 유래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기원이 본질적이라는 필요조건 자체보다, 특정한 물질과 배열이 한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충분조건이라는 전제를 ㉠겨냥한다. 기원 본질주의자는 이에 대응하여 나의 기원을 알파와 같은 물질적 구조가 아니라, 수적으로 바로 그 알파에서 유래한 사건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접합자의 형성 시점이나 인과적 발생 과정도 기원을 개별화하는 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 그러면 감마는 알파와 같은 재료로 이루어졌더라도 나의 기원이 아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은 알파의 수적 동일성을 무엇으로 판정하며, 왜 바로 그 기원이 나의 모든 가능한 삶에서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별도로 설명해야 한다.

4. (가)와 (나)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기원 본질주의의 논증을 재구성하고, (나)는 그 논증의 강한 전제를 비판한 뒤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정체성에 관한 여러 견해를 시대순으로 제시하고, 각 견해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 ③ (가)는 경험과 유전자의 인과적 작용을 설명하고, (나)는 이를 접합자의 형성 과정에 적용하고 있다.
- ④ (가)는 기원을 충분조건으로 보는 견해를 비판하고, (나)는 경험을 정체성의 대안적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글이 접합자의 생물학적 형성 과정을 설명하고, 동일한 접합자의 인공적 복제가 가능한지를 논의하고 있다.

5.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떤 가능한 삶의 주체가 실제의 나와 수적으로 동일해야 그 삶을 나에게 가능했던 삶으로 볼 수 있다.
- ② 기원 본질주의는 내가 알파에서 유래한 채 실제와 다른 경험과 성격을 가질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유전자 구성이 같다는 사실은 두 개인이 질적으로 비슷할 수 있음을 보여 주지만 수적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 ④ 기원 충분성은 알파에서 유래한 가능한 인물이라면 그 인물이 실제의 나와 동일하다고 판정하는 전제이다.
- ⑤ 집합자 재활용 문제는 내가 감마에서 유래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기원 본질주의의 필요조건을 부정한다.

6. [A]의 논증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동 가능성만 인정하면, 기원 충분성 없이도 알파와 베타의 두 인물이 모두 나라는 결론이 나온다.
- ② 기원 충분성은 동일 집합자에서 생긴 가능한 인물들을 한 개인으로 식별하며, 재활용 문제는 이를 겨냥한다.
- ③ 비동일성 전제는 한 개인이 가능한 상황마다 서로 다른 집합자에서 유래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데 필요하다.
- ④ 베타 기원을 부정하려면, 알파와 베타가 한 상황에서 각각 인물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전제해야 한다.
- ⑤ 기원 충분성을 부정하면, 실제로 알파에서 유래한 내가 베타에서도 유래할 수 있음이 곧바로 입증된다.

7. (가)의 기원 본질주의는 받아들여되 (나)의 기원 충분성 전제는 유보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가 존재하는 가능한 상황에서는 알파에서 유래해야 하지만, 알파에서 유래한 모든 가능한 인물이 나일 필요는 없다.
- ② 기원 충분성을 유보하면 알파에서 유래한 인물이 내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나는 알파와 다른 기원에서도 유래할 수 있다.
- ③ 알파가 나의 본질적 기원이라면, 가능한 상황에서 알파와 같은 물질과 배열을 지닌 감마도 나의 기원이어야 한다.
- ④ 알파가 실제 세계에서 나에게만 귀속되었다면,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도 알파는 다른 인물의 기원이 될 수 없다.
- ⑤ 알파에서 유래한 가능한 인물이라도 경험과 성격이 실제와 다르다면, 그는 나와 수적으로 다른 인물이어야 한다.

8.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민수는 실제로 집합자 A에서 유래하였다. 집합자 B는 A와 동일한 유전자 구성을 가졌지만, A와는 다른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지수로 자라났다. 민수와 지수는 성장하면서 우연히 서로 같은 경험을 하였다. 한편 A가 배아로 발달하면서 내보낸 원자들이 훗날 모두 회수되어 A의 최초 상태와 동일하게 배열된 집합자 C를 이루었고, C는 영수로 자라났다. A와 C는 서로 다른 시점에 형성된 별개의 집합자이다.

- ① 민수와 지수가 유전자 구성과 경험이 모두 같더라도 서로 다른 집합자에서 유래한 이상, 그러한 질적 유사성만으로 두 사람이 수적으로 동일해지지는 않겠군.
- ② B가 A와 동일한 유전자 구성을 지니더라도 다른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형성되었다면, B는 민수의 실제 기원인 A와 수적으로 다르고 유전자 동일성이 이를 바꾸지는 않겠군.
- ③ 기원 본질주의에 따르면 B에서 유래한 지수는 민수와 유전자와 경험이 모두 같더라도, A가 아닌 기원에서 생겼으므로 민수와 동일한 개인일 수 없겠군.
- ④ C가 A와 수적으로 구별되더라도 물질과 배열이 완전히 같으므로, 기원 본질주의 자체는 C에서 태어난 영수를 민수와 동일한 개인으로 판정해야겠군.
- ⑤ 기원 본질주의자는 A와 C의 형성 시점과 인과 과정의 차이를 기원의 개별화 조건에 포함하여, 물질과 배열이 같더라도 C를 민수의 기원인 A와 구별할 수 있겠군.

9. 문맥상 ㉠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는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조건을 전제하였다.
- ② 비평가는 작품에 드러난 형식적 한계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 ③ 연구자는 관찰한 현상을 기존 이론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 ④ 위원회는 해당 사례를 일반 원칙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 ⑤ 담당자는 조사 결과를 새로운 정책의 시행 근거로 제시하였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가가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려면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세율, 징수 절차와 같은 핵심 사항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이를 조세 법률주의라고 한다. 이 원칙은 국가가 재정상의 필요만을 이유로 국민의 재산을 임의로 침해하는 것을 막고, 납세자가 어떤 행위에 어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될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법률상 근거가 전혀 없는 과세는 경제적 필요나 공평성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상속과 증여는 재산이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와 같은 재산의 무상 이전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 공통 기반이다. 그런데 경제 활동이 다양해지면 기존의 현금·토지·주식과 다른 형태의 권리나 디지털 자산도 대가 없이 이전될 수 있다. 이때 법률이 과세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규정하였는지에 따라 새로운 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 가능성이 달라진다.

조세 열거주의는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이나 거래 유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그 목록에 포함된 경우에만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는 납세자가 법률의 문언을 통해 자신의 세 부담을 비교적 쉽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재산권 보호에 유리하다. 그러나 법률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재산 이전은 경제적 실질이 기존 거래와 유사하더라도 열거된 항목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과세 공백이 발생하며, 납세자가 형식만을 바꾸어 세 부담을 피하는 조세 회피에 이를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조세 포괄주의는 법률이 개별 거래를 모두 나열하는 대신,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가 대가 없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전되는 경우와 같이 과세 대상을 상위 개념으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법률에 이러한 포괄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면 과세 관청은 새로운 거래의 명칭만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을 검토하여 그 거래가 법률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는 형식만을 달리한 조세 회피를 막고 유사한 경제적 이익에 유사한 세 부담을 지우는 데 유리하다. 다만 포괄적 기준의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과도하게 확대되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열거주의와 포괄주의 중 어느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조세 법률주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두 방식은 과세 요건을 법률에 얼마나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인지에서 차이를 보인다. 새로운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려면 과세 관청은 먼저 법률에 그 거래를 포섭할 수 있는 포괄적 기준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한 기준이 있다면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그 문언과 입법 목적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지만, 납세자에게 조세 회피 의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할 수는 없다. 반대로 포괄적 기준 없이 과세 대상만 열거되어 있다면, 열거된 거래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거래를 유추하여 과세해서는 안 된다. 이때 과세 공백은 장래의 거래에 적용될 법률을 입법자가 보완함으로써 해소해야 한다.

조세 정의는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행위에 가능한 한 공평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과세를 막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 역시 조세 정의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열거주의는 납세자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는 대신 과세 공백을 발생시킬 수 있고, 포괄주의는 조세 회피 방지에 유리한 대신 적용 기준의 명확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조세 정의는 이 두 요청 사이의 균형 속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10. 위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세 법률주의를 제시한 뒤, 무상 이전 과세에서 두 방식의 장단점과 적용 절차를 함께 설명하고 있다.
- ② 무상 이전의 역사적 변화를 살핀 뒤, 조세 회피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에 적용할 세율을 비교하고 있다.
- ③ 과세 공백의 원인을 행정 기관의 소극성에서 찾고, 포괄주의를 폐지하기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 ④ 조세 정의의 의미를 먼저 규정한 뒤, 열거주의가 포괄주의보다 우월하다는 견해를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 ⑤ 상속과 증여의 차이를 설명한 뒤,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

11.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조세 법률주의는 과세 사항을 법률로 정하게 하여 재산권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 ② 열거주의를 엄격히 적용하면 법에 적히지 않은 새로운 무상 이전에 과세하지 못해 과세 공백이 생길 수 있다.
- ③ 포괄주의에서는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으면, 조항의 경계가 불분명한 거래도 원칙적으로 과세가 가능하다.
- ④ 조세 정의는 유사한 경제적 실질에 유사한 부담을 지우되, 법률 근거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도 함께 고려한다.
- ⑤ 법률에 포괄적 기준이 없다면 과세 관청이 유추로 공백을 매우 기보다 입법자가 장래의 거래를 위해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12. 위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세 대상을 세부적으로 열거할수록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새로운 조세 회피를 막기는 쉬워질 것이다.
- ② 포괄적 기준이 명확할수록 과세 관청은 법률 문언과 무관하게 새로운 거래를 과세할 재량을 넓게 갖게 될 것이다.
- ③ 경제적 실질이 같은 행위에 다른 세 부담이 생긴다면 법률 근거가 없더라도 동일하게 과세해야 조세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 ④ 과세 공백이 발견되면 완료된 거래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해야 유사한 무상 이전 사이의 형평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 ⑤ 포괄적 기준이 조세 회피를 줄이는 기능을 하더라도 그 경계가 불명확하면 조세 법률주의가 보호하려는 이익과 충돌할 수 있다.

13.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A국의 법률은 무상 이전 과세 대상으로 현금·토지·주식만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한다는 일반 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갑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이용권을 자녀에게 대가 없이 이전하였다. 한편, B국의 법률은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상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가 없이 이전한 경우 과세한다고 규정한다. 을은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거쳐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토큰을 자녀에게 대가 없이 이전하였다.

- ① A국과 B국의 이전은 모두 자녀에게 경제적 가치를 무상으로 넘긴 것이므로, 법률 문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같은 세 부담을 지워야 한다.
- ② A국은 일반 조항이 없어 디지털 이용권을 열거된 재산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할 수 없지만, B국은 토큰이 포괄 조항에 포함되는지 검토할 수 있다.
- ③ A국에서 이용권에 과세할 수 없는 것은 갑의 이전이 법률상 무상 이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므로, 경제적 가치가 있더라도 과세 공백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 ④ B국은 을의 조세 회피 의도만 확인되면,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토큰이 포괄 조항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과세할 수 있다.
- ⑤ A국의 열거 규정은 과세 대상의 예시에 불과하므로, 일반 조항이 있더라도 이용권의 경제적 실질이 주식과 유사하면 입법 취지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용기에서 액체를 따를 때 흐름이 주둥이 끝에서 곧바로 떨어지지 않고 그 바깥 면을 감아 흘러내리는 현상을 찰주전자 효과라고 한다. 액체가 주둥이를 벗어난 직후의 진행 방향과 연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탈 각 ϕ [프사이]라고 하자. ϕ 가 90°에 가까우면 액체가 수평에 가까운 방향으로 이탈하고, ϕ 가 작아질수록 흐름이 주둥이 아래쪽으로 더 많이 휘어진다. 이를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 δ [델타] = 90° - ϕ 같이 편향각 δ 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δ 가 클수록 액체의 흐름이 고체 표면 쪽으로 많이 휘며, 찰주전자 효과가 나타나기 쉽다.

액막이 등근 주둥이 가장자리를 따라 흐르면 액체의 진행 방향이 계속 바뀐다. 이때 액체의 관성은 흐름이 기존의 접선 방향을 유지하며 고체에서 이탈하도록 하는 쪽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흐름이 곡면을 따라 휘어지면 고체 표면 부근 액체의 압력이 낮아진다. 또한 액체와 공기가 맞닿는 자유 표면은 고체 표면 부근에서 접촉각에 따라 휘어져 모세관 메니스커스를 이룬다. 낮아진 압력이 메니스커스와 ㉡연결된 젖은 영역에 작용하면 액체를 고체 쪽으로 끌어당기는 수력-모세관 부착력이 생긴다. 결국 이탈 각은 관성에 따른 이탈 경향과 수력-모세관 부착력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젖음성은 액체가 고체 표면에 퍼지는 정도이며 접촉각 θ [세타]로

나타낼 수 있다. 접촉각이 작을수록 젖음성이 크고 메니스커스와 연결된 젖은 영역이 넓어질 수 있다. 따라서 부착력이 강해져 δ 는 커지고 ϕ 는 작아진다. 반대로 접촉각이 180°에 가까운 초소수성 표면에서는 액체가 거의 퍼지지 않으므로 흐름이 쉽게 이탈한다. 전기 젖음 처리는 전압을 가해 접촉각을 작게 하는 방법이므로, 같은 유속과 주둥이에서도 찰주전자 효과를 ㉣강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관성이 지배하는 빠른 흐름에서 주둥이 가장자리의 곡률 반경이 액막 두께보다 충분히 큰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이때 액체의 밀도·표면 장력·액막 두께가 같다면 편향각 δ 는 유속 U 에 반비례하고, 주둥이 가장자리의 곡률 반경 r 에 비례한다. 또한 δ 는 접촉각 θ 의 코사인값에 1을 더한 값인 $1 + \cos \theta$ 의 제곱근에도 비례한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을 때 U 가 커지면 δ 는 작아지고, r 이 커지면 δ 는 커진다. 또한 θ 가 커지면 $1 + \cos \theta$ 가 작아지므로 δ 도 작아진다. U 가 임계값 아래로 낮아져 δ 가 지나치게 커지면 액체는 안정적으로 공중으로 이탈하지 못하고 주둥이 외벽을 따라 흘러내린다.

뒤에 연구팀은 빠른 관성 지배 흐름에서 유속·접촉각·곡률 반경을 바꾸어 이탈 각을 측정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점성을 두 배로 바꾼 두 액체의 이탈 각이 거의 같았다. 이는 점성이 모든 유동에서 무관하다는 뜻이 아니라, 연구팀이 다룬 빠른 흐름에서는 점성보다 관성·젖음성·가장자리 형상이 이탈을 지배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점성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지는 적용되는 유동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14.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편향각과 이탈 각의 합은 90°이며, 편향각이 커질수록 액체의 흐름은 고체 표면 쪽으로 더 많이 휘다.
- ②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유속이 임계값 아래로 낮아지면 액체가 주둥이에서 안정적으로 이탈하지 못할 수 있다.
- ③ 접촉각을 작게 하는 전기 젖음 처리는 액체가 주둥이의 외벽을 따라 흐르는 현상을 강화하는 데 쓰일 수 있다.
- ④ 곡률 반경이 커지면 관성에 따른 이탈 경향이 강해져 편향각은 작아지고 이탈 각은 커지는 방향으로 변한다.
- ⑤ 점성이 이탈 각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실험 결과는 연구팀이 다룬 빠른 관성 지배 흐름에 한정된다.

15.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다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조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용기에서 액체의 밀도·표면 장력·액막 두께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자. 연구자는 유속 U 를 기존의 $\frac{1}{2}$ 로 낮추면서도 편향각 δ 를 기존 값의 $\frac{1}{2}$ 로 줄이려고 한다.

	곡률 반경 조정	$1 + \cos \theta$ 조정
①	기존 값의 1/2	유지
②	기존 값의 1/2	기존 값의 1/4
③	유지	기존 값의 1/4
④	기존 값의 2배	기존 값의 1/16
⑤	기존 값의 2배	기존 값의 1/4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연구자는 조건을 달리한 네 실험에서 액체의 이탈 각을 측정하였다. 모든 실험에서 액체는 주둥이로부터 안정적으로 이탈하였으며, 액체의 밀도·표면 장력과 액막의 두께는 같다. 또한 η [에타]와 2η 의 점성 차이는 윗글의 연구팀이 점성의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관성 지배 범위에 있다.

실험	유속 U(m/s)	접촉각 θ	곡률 반경 r(mm)	점성
P	2.0	40°	1.0	η
Q	1.0	40°	1.0	η
R	1.0	120°	1.0	η
S	1.0	40°	0.2	2η

- ① P는 Q보다 유속이 크므로 수력-모세관 부착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여, 편향각은 커지고 이탈 각은 작아질 것이다.
- ② R은 Q보다 접촉각이 크므로 액체가 표면에 더 넓게 퍼지고 부착력이 강해져, 같은 유속에서도 편향각이 커질 것이다.
- ③ S에서는 점성 증가의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 작은 곡률 반경으로 인해 Q보다 편향각은 작고 이탈 각은 클 것이다.
- ④ P의 유속은 Q의 2배이므로 P의 편향각은 Q의 절반이고, 이에 따라 P의 이탈 각도 Q의 2배가 될 것이다.
- ⑤ R과 Q는 유속과 곡률 반경이 같으므로 접촉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실험의 편향각은 같을 것이다.

17.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기능한다
- ② ㉡ : 이어진
- ③ ㉢ : 좌우된다
- ④ ㉣ : 심화하는
- ⑤ ㉤ : 경시할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서울에 사는 방탕한 이춘풍은 선대의 재산을 탕진한 것으로도 모자라, 평양 기생 추월에게 유혹당해 호조에 서 빌린 돈 이천 냥까지 모두 잃고 추월의 사환 노릇을 한다. 이 소식을 들은 춘풍의 아내는 남장을 하고 평양 감사의 회계 비장*으로 춘풍 앞에 나타난다.

이때 회계 비장이 춘풍의 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탐문했구나. 하루는 비장이 추월의 집을 찾아가니, 춘풍의 거동이 기구하고 불만하다. 봉두난발 땃수룩한데 얼굴조차 안 씻어 더러운 때가 덕지덕지하고, 십 년이나 안 뺀 옷을 도롱도

롱 누비어서 얹어 입었으니, 그 추한 형상에 뉘가 아니 침을 뱉으리오. 춘풍이 제 아내인 줄을 꿈에나 알라마는 비장이야 모를쏜가.

분한 마음을 감추고 추월의 방에 들어가니, 추월은 회계 비장을 호리려고 교태를 부리며 차담상을 차려 내왔다. 비장이 약간 먹고 사환 노릇을 하는 춘풍에게 상을 내어주며 물었다.

“불쌍하다, 저 걸인 놈아. 네가 본디 걸인이나? 어찌 그리 되었느냐?”

춘풍이 엎드려 여주되,

“소인도 경성 사람이나 이리되었으니 사정이야 어찌 다 말씀드리리까. 나리님께서 차담상을 내려 주시니 높은 은덕 감사하여이다.”

비장이 미소하고 돌아왔다가 수일 후 춘풍을 잡아들여 형틀 위에 올려 매고 호령하였다.

“네가 막중한 나랏돈을 빌려 쓰고 평양에 내려온 뒤 한 푼도 갚지 않았으니 죽기를 사양치 말라.”

사령이 십여 대를 치자 춘풍의 다리에서 피가 흘렀다. 비장이 또 치려 하다가 혼잣말로 ‘차마 못 치겠다.’ 하고는 사령을 멈추게 한 뒤 물었다.

“㉠그 돈을 다 어찌하였느냐? 투전을 하였느냐? 주색에 썼느냐? 돈 쓴 곳을 아뢰어라.”

춘풍이 울면서 여주되,

“소인이 호조 돈을 내어 쓰고 평양에 내려와 집주인 추월이와 일 년을 함께 놀고 나니 한 푼도 없어지고 이 지경이 되었으니, 나리님 분부대로 죽이거나 살리거나 하옵소서.”

비장이 이 말을 듣고 이를 갈며 사령에게 추월을 잡아 오라고 명하였다. 추월이 잡혀 오자 비장은 형틀에 올려 매고 매를 치게 하며 죄를 물었다.

추월이 여주되,

“㉡춘풍이 가져온 돈 소년이 어찌 아오리까?”

비장이 성을 내어 말하였다.

“여담절각(汝-折角)이라 하는 말을 네 아느냐? ㉢불같은 호조 돈을 영문(營門)이 물어 주랴, 본관에서 물어 주랴? 백성에게 수련하랴? 네 이 지경에 무슨 잔말을 하랴?”

이어 추월을 엄히 치며 돈을 바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호령하였다. 추월은 죽기를 면하려고 애걸하며 여주었다.

“국법도 엄숙하고 나리님 분부도 엄하오니, 춘풍이 가져온 돈을 영문 분부대로 소년이 바치리다.”

비장이 말하였다.

“네 죄를 알고 돈을 모두 바치겠다 하니 살려 주거니와, 호조 돈의 이자까지 계산하여 오천 냥을 모두 바치라.”

추월은 열흘의 말미를 달라고 한 뒤 오천 냥을 바치겠다는 다짐*을 써서 올렸다. 그제야 비장은 춘풍과 추월을 형틀에서 내려놓고 춘풍에게 말하였다.

“열흘 안으로 돈을 모두 받아 서울로 올라오라. 나는 특별한 일이 있어 먼저 올라갈 것이니, 네가 서울에 오거든 문안하여라.”

춘풍이 감사하며 여주었다.

“나리님 덕택으로 호조 돈을 갚았습니다.”

(중략)

춘풍이 돈을 싣고 경성으로 올라오자, 춘풍의 아내가 문밖으로 나가 그의 손을 붙잡고 물었다.

“어이 그리 더디 온가? ㉠장사에 이익은 많았으며 평안히 오시니까?”

춘풍은 반가워하며 열두 바리에 실어 온 돈을 자신이 장사하여 남긴 것처럼 집 안에 들여놓고 의기양양하게 행동하였다. 아내가 차담상을 차려 오자 음식 맛을 이리저리 훑잡으며 말하였다.

[B] “평양 음식만 못하네. 호조 돈 아니면 올라오지도 않았을 것을. 내일 호조 돈을 다 바치고 다시 평양으로 내려갈 것이니, 너도 함께 가서 평양 감영 내 작은집의 음식을 먹어 보소.”

춘풍이 온갖 교만을 다하자, 아내는 황혼을 기다렸다가 여자 의복을 벗고 비장 의복을 다시 입은 채 들어왔다. 춘풍이 의아하여 방 안에서 주저주저하자 비장이 호령하였다.

“평양에 왔던 일을 생각하라. 네 집에 왔다 한들 그다지 거만하냐?”

- 작자 미상, 「이춘풍전」

*비장: 감사, 사신 등을 따라다니며 일을 돕던 조선 시대의 무관.

*다짐: 지은 죄를 진술하거나 죄목을 인정하는 글.

*여담절각: 너의 집 담이 아니었으면 내 소의 뿔이 부러졌겠느냐는 뜻으로, 남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역지를 쓰는 말.

*영문: 감사가 일을 보던 관아.

18.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춘풍의 몰락한 처지를 외양으로 드러내고, [B]는 귀환 뒤 그의 반성과 생활 태도의 변화를 보여 준다.
- ② [A]는 춘풍과 비장의 정보 격차를 드러내고, [B]는 그 정보 격차가 해소되기 전에 춘풍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제시한다.
- ③ [A]는 서술자의 평가를 통해 춘풍을 회화화하고, [B]는 춘풍이 실제 장사를 통해 경제적으로 성공했음을 확인해 준다.
- ④ [A]는 춘풍의 실제 몰락을 회화화하고, [B]는 그가 꾸며 낸 성공과 뒤이은 정체 폭로를 대비하여 보여 준다.
- ⑤ [A]는 춘풍의 외양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B]는 아내의 내면 독백을 통해 정체를 폭로하는 이유를 밝힌다.

19. 뒷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장은 춘풍에게 돈의 사용 경위를 진술하게 한 뒤, 추월을 잡아들여 변제를 강제하였다.
- ② 비장은 추월이 춘풍의 돈을 가져갔다고 자백하자, 그 진술을 근거로 오천냥의 변제를 명하였다.
- ③ 춘풍은 비장의 정체를 모른 채 그의 지시를 따르고, 서울에서는 되찾은 돈을 자신의 장사 성과인 것처럼 내세웠다.
- ④ 아내는 평양에서는 공적 권위로 춘풍과 추월을 제압하고, 서울에서는 정체를 감춘 채 춘풍이 허세를 드러내게 하였다.
- ⑤ 춘풍이 돈을 가지고 귀환한 뒤에도 다시 평양으로 내려가겠다고 말한 것은, 경제적 문제의 해결이 곧바로 그의 태도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20.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이미 확인한 돈의 사용처를 재차 물어, 춘풍의 진술이 앞선 진술과 일치하는지를 시험하는 질문이다.
- ② ㉡은 춘풍이 돈을 가져왔다는 사실과 자신이 그 돈을 알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에게 변제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는 말이다.
- ③ ㉢은 공금의 손실을 영문이나 본관, 백성의 책임으로 돌려 추월에게 내려질 처벌을 완화하려는 말이다.
- ④ ㉢은 춘풍의 귀환 경위를 다시 확인하여, 그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는지를 직접 판단하려는 질문이다.
- ⑤ ㉠은 춘풍에게 돈의 사용처를 직접 답하게 하는 질문이고, ㉢은 이미 아는 사실을 모르는 척하여 춘풍의 허세가 드러나게 하는 질문이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춘풍전」에서 춘풍의 아내는 남장을 통해 남성 관리의 공적 권위를 획득하고, 춘풍이 초래한 경제적 위기를 해결한다. 독자는 비장의 정체를 알고 있지만 춘풍과 추월은 이를 알지 못하므로 극적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아내는 돈을 되찾은 뒤에도 정체를 바로 밝히지 않고 춘풍이 허세를 드러내게 한다. 이후 다시 비장의 모습으로 나타나 춘풍에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고, 해당 장면에서 부부 사이의 우열이 뒤집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① 춘풍이 아내 앞에서 초라한 사환으로 행동하는 장면은, 독자의 정보 우위가 그의 무지와 추락을 동시에 희극적으로 부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아내가 비장의 권한으로 추월에게 변제를 강제한 것은, 가정 안에서 행사하기 어려웠던 통제력을 공적 권위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춘풍이 돈을 가지고 귀환한 뒤 다시 평양으로 내려가겠다고 말하는 모습은, 아내의 개입이 그의 경제적 무능과 방탕한 태도까지 이미 교정했음을 보여 준다.
- ④ 아내가 귀환한 춘풍에게 장사의 이익을 묻는 것은, 정체 폭로를 늦춤으로써 춘풍이 스스로 거짓 성공담과 허세를 드러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아내가 다시 비장의 모습으로 춘풍을 호령한 것은, 공적 권위를 사적 공간에 재현하여 해당 장면에서 부부 사이의 우열을 뒤집고 춘풍에게 깨달음을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걸어서 항구에 도착했다.
길게 부는 한지(寒地)의 바람
바다 앞의 집들을 흔들고
긴 눈 내릴 듯
낮게 낮게 비치는 불빛
지전(紙錢)에 그려진 반듯한 그림을
주머니에 구겨 넣고
반쯤 탄 담배를 그림자처럼 꺼 버리고
①조용한 마음으로
배 있는 데로 내려간다.
정박 중의 어두운 용골(龍骨)*들이
모두 고개를 들고
항구의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두운 하늘에는 수삼 개(數三個)의 눈송이
하늘의 새들이 따르고 있었다.

- 황동규, 「기항지 1」

*용골: 선박 바닥의 중앙을 받치는 길고 큰 재목.

(나)

한겨울 못 잊을 사람하고
한계령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의 풍요를 알리고
자동차들은 뒤통거리며
제 구명들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묶였으면
오오, 눈부신 고립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에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풍요는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드리우기 시작하지만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는 않으리
헬리콥터가 눈 속에 갇힌 야생조들과
짐승들을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시퍼렇게 살아 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까야만 포탄을 뿌려 대던 헬리콥터들이
고라니나 꿩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자비롭게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②나는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여
난생처음 짧은 축복에 몸 둘 바를 모르리

- 문정희, 「한계령을 위한 연가」

(다)

까치 소리는 반갑다. 아름답게 굴린다거나 구슬프게 노래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기교 없이 가볍고 솔직하게 짓는 단 두

음절 ‘까깍’. 첫 ‘까’는 높고 둘째 ‘깍’은 낮게 이어지는 단순한 그 음정이 그저 반갑다. 나는 어려서부터 까치 소리를 좋아했다. 지금도 아침에 문을 나설 때 그 소리를 들으면 그날은 기분이 좋다.

반포지은(反哺之恩)을 안다고 해서 효조(孝鳥)라 일러 왔고, 까치가 집을 지은 뒤 벼슬이 오르거나 글재주가 늘었다는 옛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까치 소리는 반갑고 기쁘다. 아침 까치가 깃으면 반가운 편지가 온다는 말이 그럴싸하게 느껴지는 것도 그 소리가 반가운 소식의 예고처럼 희망적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나는 까치뿐 아니라 까치집도 좋아한다. 높은 나무 위에 마른 나뭇가지를 엉성하게 엮어 놓은 것이 나무에 덧붙인 것 같지 않고, 삭정이가 그대로 쌓인 듯 자연스럽다. 그러면서도 비가 새지 않고 달빛과 바람만을 받으니 소쇄한 맛이 난다. 나는 이답에 사랑채를 짓는다면 꼭 저 까치집처럼 간소하고 소쇄하게 짓고 싶었다. ㉡제비집은 암전하고 단아한 가정부인이 매만져 나가는 살림집이요, 까치집은 쾌락하고 풍류스러운 시인이 거처하는 집이다.

비둘기장은 아무리 멋지게 꾸며도 장(場)이지 집이 아니다. 다른 새의 보금자리는 둥지라 하면서 오직 제비집과 까치집만 ‘집’이라 하는 데서도 한국 사람의 집에 대한 관념과 정서를 엿볼 수 있다. 요새 고층 건물, 특히 ㉢아파트 같은 건물들은 아무리 고급으로 지었다 해도 그런 정서가 없다면 ‘사람장’이지 ‘집’은 아니다.

지금은 아침 여덟 시, 나는 정릉 안 숲속에 앉아 있다. 오래 간만에 까치 소리를 들었다. 아침 햇빛을 받은 나뭇잎은 곱게 푸르고, 그 사이의 하늘은 차갑게 맑다. 사람은 아무도 없고 숲속은 한없이 고요하다. 까치들은 사람이 옆에 있다는 데 아무 관심도 없이 내 앞에서 깡충깡충 뛰는다. 손으로 만져도 가만히 있을 것만 같다.

나는 어디선가 본 민화 한 폭을 떠올린다. 한 노옹이 나무 밑에서 허연 배를 내놓고 낮잠을 자는데, 그 배 위에 까치 한 마리가 우뚝 서 있는 그림이었다. 나는 민화란 어린아이의 자유화처럼 천진하고 기발해서 저런 그림도 그려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저 까치들을 보고 ㉣그것은 기발한 상상이 아니요, 사실이었던 것을 깨달았다.

예전에 이지봉은 정호음의 “산과 물이 바람에 소리치며, 강물은 거세게 울먹이는데, 달은 외로이 비쳐 있다.”라는 시구가 실경에 맞지 않는다고 평했다. 달이 고요히 밝은 밤에는 물결도 잔잔한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백곡은 황강역에서 거센 여울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다가 달이 외롭게 걸린 모습을 보고서야 그 구가 실경을 그린 명구임을 알았다고 한다. 나도 민화가 실경인 줄 모르고 기상(奇想)*으로만 여겼던 것이다.

㉤그 태고연(太古然)한* 풍경의 민화 한 폭이 다시금 눈앞에 뚜렷이 떠오른다. 나무 밑에서 허연 배를 내놓고 누워 잠자는 노옹. 그 배 위에 서 있는 까치 한 마리.

- 윤오영, 「까치」(출제용 축약·재구성)

*기상: 좀처럼 짐작할 수 없는 별난 생각.

*태고연한: 아득한 옛 모습 그대로인 듯한.

2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항구의 사물에 과거 기억을 투사하고, (나)는 외적 제약을 사랑하는 이와 결속으로 의미화한다.
- ② (가)는 감각적으로 재구성된 항구 풍경 속 화자의 차분하고 가라앉은 내면을, (다)는 현재 경험에 따른 기존 판단의 수정을 드러낸다.
- ③ (나)는 공포를 인식한 뒤 고립의 소망을 유보하고, (다)는 전승을 감각과 조응하는 범위에서 받아들인다.
- ④ (가)는 정박한 배들과의 교감으로 고독을 해소하고, (다)는 민화와 동일한 장면을 직접 목격해 판단을 수정한다.
- ⑤ (나)는 현재와 과거 헬리콥터의 기능 차이를 지우고, (다)는 집의 정서를 건축물의 실용성 평가로 확장한다.

23.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감정을 정리한 뒤 곧 배에 올라 항구를 떠나려는 결단을, ㉡은 과거의 기억 때문에 구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태도를 보여 준다.
- ② ㉠은 적막한 풍경에 압도되어 이동을 멈춘 상태를, ㉡은 주어진 고립을 수동적으로 감수하는 태도를 보여 준다.
- ③ ㉠은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지 않은 채 이동하는 상태를, ㉡은 구조 가능성을 알면서도 고립의 의미를 지키려는 선택을 보여 준다.
- ④ ㉠은 정박한 배들과 교감하여 얻은 평온을, ㉡은 현재의 헬리콥터와 과거의 상처를 화해시키려는 태도를 보여 준다.
- ⑤ ㉠은 항구를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직접 표명하는 장면을, ㉡은 고립의 공포가 커지자 구조를 체념적으로 포기하는 태도를 보여 준다.

24.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폭설은 이동을 막는 사건이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머물 기회가 되고, [B]에서는 물리적 고립이 운명적 결속의 소망으로 확장된다.
- ② [C]에서는 폭설의 풍요가 어둠과 함께 공포로 변하지만, 화자는 도움에 응하지 않고 고립된 상황을 지속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 ③ [D]에서는 먹이를 뿌리는 헬리콥터의 현재 모습에 포탄을 뿌리던 과거의 모습이 겹쳐지며 전쟁의 폭력적 기억이 환기된다.
- ④ [D]에서 화자는 과거와 현재의 헬리콥터를 분리하고 현재의 구호 행위를 신뢰함으로써 고립에서 느끼는 불안을 해소한다.
- ⑤ [E]의 '짧은 축복'은 화자가 고립의 순간이 영속하지 않음을 인식하면서도 그 순간을 소중히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 준다.

2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전승된 의미보다 직접 느끼는 호감을 앞세우며, 이어지는 내용은 소리의 느낌과 조응하는 전승을 제한적으로 수용함을 보여 준다.
- ② ㉠의 대비는 두 집의 정서 차이를 구체화하고, ㉢에서는 그 기준이 건축물의 실용성을 평가하는 데까지 확장된다.
- ③ ㉢에서 아파트를 '사람장'이라 한 것은 물질적 수준보다 자연스러움과 정서의 유무를 중시한 결과이다.
- ④ ㉠은 민화와 동일한 장면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현재의 관찰을 통해 민화 속 장면이 단순한 기상이 아니라 실제 풍경에 근거한 것임을 깨달은 판단이다.
- ⑤ ㉠의 판단 수정은 시화의 사례로 뒷받침되고, ㉢에서는 새롭게 이해된 민화의 장면이 다시 환기된다.

26.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문학 작품에서 장소는 사건이 벌어지는 배경에 머물지 않고, 주체가 일상의 질서와 잠시 거리를 두며 대상과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주체는 특정 장소에서 외부의 고립이나 정지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현재의 감각적 경험 위에 과거의 기억을 겹쳐 놓기도 한다. 또한 직접 경험한 장면은 상상이나 통념에 근거했던 기존의 판단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

- ① (가)에서 용골을 고개를 든 존재로, 눈송이를 하늘의 새로 포착한 것은 화자가 항구의 외부 대상을 자신의 감각 속에서 새롭게 지각한 양상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나)에서 화자는 폭설로 인한 고립이 공포를 동반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고립을 못 잊을 사람과 함께할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군.
- ③ (가)의 '조용한 마음'은 화자가 항구의 외부 사물에 대한 감각적 지각을 거두고 자신의 내면에만 침잠한 상태를 보여 주는군.
- ④ (나)에서 먹이를 뿌리는 헬리콥터의 모습에 포탄을 뿌리던 과거의 모습이 겹쳐지며, 현재의 구호 장면이 과거의 폭력적 기억과 함께 인식되고 있군.
- ⑤ (다)에서 글쓴이가 민화를 기발한 상상으로만 보았던 판단은 숲속에서 까치를 직접 관찰한 경험을 통해 실경에 대한 인식으로 수정되고 있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나’는 습성 녹막염을 진단받고 한 병원에 입원한다.

①내가 정말로 아프기 시작한 것은 늙은 간호원이 병실 앞에 내 이름이 새겨진 문패를 걸어 준 후, 수의 같은 환자복을 주었을 때였다. 누가 입던 환자복이었는지 몰라도 채구에 맞지 않는 환자복을 입고 우두커니 서 있는 꼬락서니는 평소에 생각하던 자기의 이미지를 완전히 깨뜨리기에 충분하였으며, 내 얼굴에는 완연히 병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누구의 부축 없이는 변소에도 가지 않았고, 의사만 보면 공연히 매달리고픈 충동을 받곤 했다.

입원한 다음 날, 한 명의 의사들이 병실로 몰려와 겁에 질린 나를 전범* 다루듯 사납게 벽 쪽으로 돌려세운 뒤, 주삿바늘로 옆구리를 찔러 굉장한 양의 노르끼한 액체를 빼내었다. 나는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유난히 하얀 병실 벽을 마주 보며 그들의 작업을 끝날 때까지 약간 울고 있었다. 작업을 마치고 사라지는 집행인들의 흰 가운데서는 병실 벽처럼 차디찬 체온이 느껴졌다.

어느 틈엔가 나는 아침이면 체온계를 입에 물고, 사탕을 깨물 세라 조심스럽게 녹이는 유아처럼 체온을 재는 모범 환자가 되었다. 입원한 지 일주일쯤 지나자 열도 정상으로 내려갔다. 까짓 폐결핵이야 요새 약들이 좋으니 감기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는 의사의 말투에 한편으로는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안을 받아, 반쯤 남기던 죽을 꾸역꾸역 모조리 굶어 먹었다.

그러면서도 차츰 결핵에 걸린 자신이 실감되었다. 앞으로 긴 시간 창백한 얼굴로 낙엽 구르는 소리에도 눈물을 흘리는 폐병 환자 노릇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해, 나는 몇 번이고 세면대의 긴 চে경* 앞에 서서 메기처럼 눈을 껌벅거리며 혼자 울었다.

그러나 병이라면 어디를 만지거나 움직일 때 통증이 와야 할 텐데, 이진 어디를 만져도 아프지 않았다. 오후만 되면 끈적끈적한 늪지대에 빠진 듯 미열이 올 뿐이었다. 얼마 후 나는 에잇 모르겠다라는 안이한 체념으로 시간 맞추어 밥을 먹고, 빈 시간이면 잠을 자는 생활에 만족하게 되었다.

입원 생활은 금붕어 같은 생활이었다. 환자들은 양순한 민물고기처럼 조용히 지느러미를 움직이며 병원을 부유하고 있었다. ②나는 이 붕어 같은 병원 생활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오랜 방황 끝에 고향에 닮은 내린 범선처럼 나는 한가로웠고, 즐거웠다.

(중략)

반대편에 서서 어둠에 웅크린 병동을 바라보면 기괴한 감격에 싸이곤 했다. 병동은 파도가 밀려오는 철 지난 해변의 방갈로처럼 우울하게 해감 냄새를 피우고 있었다. 모든 병실에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났고, 유리창 너머로 환자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내다보였다. 투명한 바닷물 속에 수많은 해초와 생물이 수련 거리는 것처럼 모든 병실이 제각기 움직이고 있었다. 환자들은 보육기 속에서 생명을 키우는 유아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③그것은 정말 생생한 경이었다.

일 층에서 사 층까지 모든 병동은 밤에도 환히 눈을 뜨고 있었다. 간호원들은 병실 사이를 부산스레 오갔고, 의사들은 ‘비

상’을 알리는 주변 하사처럼 기민하게 층계를 오르내렸다. ④나는 그들이 균을 잡아먹는 백혈구와 같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무표정하고 뻣뻣한 얼굴에서는 균을 거부하는 강력한 항생제의 효능이 느껴졌다.

그즈음 나는 입원한 이후 그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대한 사실을 깨달았다.

언젠가 외국 잡지에서 미안수* 광고를 본 적이 있었다. 광고 속 사내는 잘 깎은 턱 위에 자연스럽고 세련된 웃음을 띠고 있었다. 그 매혹적인 웃음을 제거한다면 그것이 미안수 광고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듯했다.

병원 의사들은 광고에 나올 법한 사내들이 미소를 잃어버림으로써, 병원 왕래를 권장하는 무표정한 히포크라테스의 모델로 전략해 버린 듯 보였다. 그들은 일 초의 주저함도 없이 내장을 자르고 뼈를 굶을 권위를 보여 주는 데 만족하는 것 같았다. 그들이 외무 사원처럼 웃으며 증세를 묻는다면 환자는 얼마나 심리적 위안을 받을 것인가.

이리하여 나는 그들을 웃기기 위해 고용된 사설 코미디언 같은 책임 의식을 갖게 되었다. 나는 스스로의 청진기를 들고 그들을 진단하며, 웃음을 일으킬 소인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알아내려 했다. 그러나 가려운 곳을 긁어 주거나 원하는 것을 주어 욕구를 충족시키면 웃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첫 시도는 곧 좌절되었다. 그들에게는 유난히 가려운 곳도, 간절히 갖고 싶은 것도 없는 듯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잠을 자야 할 때는 수면제를 먹었고, 배가 고프면 전용 식당에서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었다.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먹었고, 피로하면 비타민 C를 물에 타 마셨다. 성욕이 고개를 들면 간단히 진통제로 말살해 버렸다. ⑤도대체가 그들은 충분한 영양을 취하고 있는 온상 속의 귀족 식물이었던 것이다. 며칠이 지나도 나는 그들이 가려워하는 곳을 발견하지 못했다.

- 최인호, 「전습 환자」

*전범: ‘전쟁 범죄인’을 줄여 이르는 말.

*체경: 몸 전체를 비추어 볼 수 있는 큰 거울.

*미안수: 피부에 수분을 주어 피부 표면을 다듬는 화장수. 로션.

27. 밑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패와 환자복을 받은 뒤 달라지는 행동을 연쇄적으로 제시해, 제도적 표지가 ‘나’의 자기 인식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보여 준다.
- ② 금붕어와 바닷속 생물의 이미지를 반복하되, 수동적 안주와 지속되는 생명 활동이라는 서로 다른 의미로 변주하고 있다.
- ③ 미안수 광고에 관한 과거의 기억을 현재 의료진의 무표정이 지닌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비교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 ④ 전문적 의료진과 비정서적 의료진을 서로 다른 인물군으로 나누어, 치료 능력과 인간적 교감의 대립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직접적인 내면 진술과 가정적 진술, 비유적 연상을 결합하여 병원 경험에 대한 ‘나’의 주관적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2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신체 상태의 변화보다 병원의 외적 표지가 먼저 '나'의 환자 정체성과 의존적인 행동을 형성한 계기임을 보여 준다.
- ② ㉡은 수동적인 입원 생활을 안정으로 받아들이으로써, 환자에게 부여된 규율을 자율적인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태도를 보여 준다.
- ③ ㉢은 병동의 우울하고 차가운 외관과 그 내부에서 지속되는 환자들의 생명 활동이 함께 포착된 데서 비롯된 반응이다.
- ④ ㉣은 무표정한 의료진에게서 질병을 제거하는 전문적 효율성과 인간적 온기의 결핍을 동시에 감지한 판단이다.
- ⑤ ㉤은 의료진의 욕구가 약물과 전용 시설로 즉시 조절되어 자발적인 욕망이 퇴화했다고 보는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다.

29.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미안수 광고 속 웃음은 상품 자체의 효능보다 웃음이 타인에게 미치는 심리적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비교 기준으로 활용된다.
- ② '나'는 의료진의 수술 능력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전문적 권위 만으로는 환자의 정서적 위안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본다.
- ③ '스스로의 청진기'는 진단받던 환자가 의료진의 욕망과 감정을 관찰하는 주체로 위치를 바꾸려는 태도를 나타낸다.
- ④ 의료진을 웃기려는 첫 시도는 웃음이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을 통해 유발될 수 있다는 '나'의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 ⑤ 첫 시도의 실패는 의료진에게 자연스러운 욕구와 감정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임상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제시된다.

3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제도적 공간은 명칭·복장·규율을 통해 개인에게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며, 개인은 그 역할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몸과 행동을 새롭게 인식하기도 한다. 한편 제도의 대상이었던 인물이 제도를 운영하는 이들을 다시 관찰하고 진단할 때, 관찰자와 피관찰자의 위치가 뒤집힐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의 전도는 제도 구성원들이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실한 인간적 감정과 자발적 욕망을 아이러니하게 드러내기도 한다.

- ① '문패'와 '환자복'을 받은 뒤 병색을 느끼는 모습은 제도적 표지가 '나'의 자기 인식을 환자 역할에 맞게 바꾼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체온을 재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는 모습은 '나'가 병원의 규율을 받아들이며 모범 환자의 행동을 내면화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금붕어 같은 생활'을 좋아하는 모습은 제도의 보호를 받는 수동적 생활을 안정과 휴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스스로의 청진기'를 들어 의료진을 진단하는 모습은 관찰 대상이던 환자가 관찰 주체의 위치를 차지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의료진이 욕망을 약물과 전용 시설로 처리하는 모습은 제도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발적 욕구와 인간적 활력을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하늘이 이 산을 열어 지계(地界)도 밝으시고
천추(千秋) 수월(水月)이 분(分) 밖에 맑았으라
아마도 석담 파곡*을 다시 볼 듯하여라 <제1수>

이곡(二曲)은 어디매오 화암도 좋으시고
㉠천봉(千峯)이 합쳐진 데 한없는 연화로다*
어디서 견폐(犬吠) 계명(鷄鳴)*이 골골이 들리나니 <제3수>

삼곡(三曲)은 어디매오 황강(黃江)이 여기로다
㉡양양(洋洋) 현송(絃誦)*이 구재(舊齋)를 이었으니
지금의 추월(秋月) 정강(亭江)이 어제론 듯하여라 <제4수>

사곡(四曲)은 어디매오 이름도 혼란하네
㉢탄성(灘聲)과 악위(岳危)*가 계곡을 혼드는데
그 아래 깊이 자는 용이 도가성(權歌聲)*에 깨도다 <제5수>

육곡(六曲)은 어디매오 병산(屏山)이 금수(錦繡)로다
백운 명월이 옥경(玉京)*이 여기로다
㉣저 위에 태수(太守) 신선(神仙)이 네 뉘신 줄 몰라라 <제7수>

팔곡(八曲)은 어디매오 능강동(陵江洞)이 맑고 깊어
금서(琴書) 사십 년에 네 어인 손이러니
아마도 일실 쌍정*의 못내 즐겨 하노라 <제9수>

- 권섭, 「황강구곡가」

*석담 파곡: '석담'은 이이가 강학하던 곳이고, '파곡'은 송시열이 강학하던 곳임.

*한없는 연화로다: 끝이 없는 안개로구나.

*견폐 계명: 개 짖는 소리와 닭의 울음소리.

*양양 현송: 울려 퍼지는 거문고 소리.

*탄성과 악위: 여울 소리와 높이 솟은 산.

*도가성: 노 젓는 소리.

*옥경: 옥황상제가 산다고 하는 장소.

*일실 쌍정: 작가가 직접 조성한 거연재와 만풍각을 가리킴.

(나)

㉤높으나 높은 나무에 날 권(勸)하여 올려 두고
이보오 벗님네야 흔들지나 마십시오
떨어져 죽기는 서럽지 않아 임 못 볼까 하노라

- 이양원

(다)

철령(鐵嶺) 높은 고개 ㉥쉬어 넘는 저 구름아
고신(孤臣) 원루(冤淚)를 비 삼아 띄워다가
임 계신 구중심처(九重深處)에 뿌려 볼까 하노라

- 이항복

3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에 직접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간절한 요구와 내면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공간의 높이나 깊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대상이나 상황의 공간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계절의 순환을 제시하여 현재 삶에 대한 화자의 회한과 상실감이 점차 심화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임과 멀어진 현실에 대한 화자의 원망과 좌절이 깊어지는 양상을 드러낸다.
- ⑤ 동일한 시구와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 변화를 단계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3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수많은 봉우리와 끝없이 펼쳐진 안개가 어우러진 경관으로 화암도의 아득한 분위기를 강화한다.
- ② ㉡과 ㉢은 각각 옛 강학의 계승과 병산 위 사람들의 신선적 형상화를 통해 자연 공간의 의미를 확장한다.
- ③ ㉠과 ㉢은 경관과 사람들에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하여 황강 일대 전체를 속세와 단절된 선계로 표현한다.
- ④ ㉡은 현승으로 과거와 현재를 잇고, ㉣은 도가성과 이어져 자연의 신령한 기운이 깨어나는 순간을 형상화한다.
- ⑤ ㉢의 탄성과 악위는 자연의 웅장한 형세를, ㉣의 신선에 비유된 사람들은 병산 경관의 신비감을 부각한다.

33.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높은 공간을 통해 임에게 가까워질 수 있음을 드러내어 현실적 거리의 해소 가능성을 구체화한다.
- ② ㉣은 타인이 만든 위험을 화자에게 부과하고, ㉤은 임의 응답을 화자에게 되돌려 줄 통로로 기능한다.
- ③ ㉣은 죽음보다 임과 단절되는 일을 더 두려워하고, ㉤은 원루와 화자를 함께 임의 공간으로 옮긴다.
- ④ ㉣은 물리적 위험을 임과의 단절로 의미화하고, ㉤은 원루를 비로 삼아 임에게 옮길 가능성을 부여한다.
- ⑤ ㉣은 화자의 위태로운 처지를, ㉤은 원루의 전달 가능성을 드러내며, 모두 임과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회복한다.

34. 밑글을 다음과 같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구곡가는 산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특정 공간에 선현의 강학 자취와 작가 자신의 학문적 삶을 겹쳐 놓기도 한다. 이때 선현과 관련된 장소는 학문적 전통이 후대에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 주며, 작가가 오랫동안 생활하고 직접 조성한 장소는 수양과 삶의 결실을 드러낸다. 한편 군신 관계를 다룬 시조에서는 높은 곳이나 깊숙한 궁궐 등의 공간 이미지가 임과 화자의 거리 또는 화자가 처한 정치적 위험을 나타낸다. 화자는 자연물에 매개 기능을 부여하여 임을 향한 충정뿐 아니라 자신의 역을함과 원통함을 전달하려 하기도 한다.

- ① (가)에서 황강을 석담·파곡과 겹쳐 본 것은 선현의 강학 전통으로 현재 공간의 권위를 높이되, 황강은 과거 강학처의 모방에 머물러 독자성을 얻지 못한다고 본 것이겠군.
- ② (가)에서 현승이 구재를 이었다 하고 추월 정강을 어제처럼 여긴 것은, 과거의 강학 전통이 현재의 황강 경관과 후대의 삶 속에서도 단절 없이 지속된다고 본 것이겠군.
- ③ (가)의 금서 사십 년과 일실 쌍정은 작가가 오랫동안 학문적 삶을 이어 가고 직접 공간을 조성한 과정이 수양과 삶의 구체적인 결실로 분명히 남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④ (나)의 높은 나무는 타인에 의해 놓인 정치적 위험을, (다)의 높은 고개와 깊은 궁궐은 화자와 임 사이의 정치적·공간적 비대칭 관계를 더욱 선명하게 가시화한 것이겠군.
- ⑤ (다)의 구름은 화자의 원루를 임의 공간으로 옮기려는 상상적 매개이므로, 그 자체로 현실의 거리를 실제로 없앴거나 화자의 감정 전달이 성공했음을 확정한 것은 아니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1. ④

[관계 중심 읽기의 개념과 재진술의 기능]

- ④ 재진술을 인식한 독자는 각 문장을 독립적인 새로운 정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장이 하나의 핵심 내용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낸다고 이해한다. 이에 따라 여러 문장을 하나의 핵심 판단 아래 묶을 수 있으므로 기억해야 할 독립적인 정보 단위는 오히려 줄어든다. 따라서 재진술을 인식할수록 기억해야 할 정보가 늘어난다고 설명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첫째 문단에서 관계 중심 읽기를 하는 독자는 새로운 문장을 독립된 정보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앞의 개념을 설명·구체화·제한하는 정보인지를 확인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② 둘째 문단에서 정의는 개념이 무엇이고 어디까지를 포함하는지를 밝혀 개념의 경계를 정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③ 둘째 문단에서 비교는 같은 기준에서 공통 속성을 확인하고, 대조는 그 기준에서 차이점을 드러낸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⑤ 마지막 문단에서는 접속 표현만으로 관계를 확정해서는 안 되며 대상과 범위, 조건, 인과 과정 등의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 ⑤

[재진술 인식과 정보 압축의 관계]

- ⑤ [A]에서는 필자가 앞에서 정의한 개념을 뒤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 주거나, 앞의 인과 관계에서 나온 결과를 뒤에서 더 일반적인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하였다. 독자가 이를 재진술로 인식하면 여러 문장을 서로 독립된 정보로 기억하지 않고 하나의 핵심 판단 아래 묶을 수 있다. 따라서 재진술의 인식이 여러 문장의 내용을 하나의 판단으로 압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 ⑤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재진술은 동일한 어휘의 반복에 한정되지 않는다. 표현이나 설명의 수준이 달라져도 동일한 핵심 내용을 나타내면 재진술이 될 수 있다.
- ② [A]에서는 앞의 정의가 뒤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제시되거나 앞의 결과가 더 일반적인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추상적 수준이 다른 문장도 같은 핵심 내용을 나타낼 수 있다.
- ③ 재진술된 문장은 앞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요약하여 글의 구조를 확인하게 하므로 읽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문장이 아니다.
- ④ 관계 중심 읽기는 뒤에 이어질 설명의 유형을 어느 정도 예상하게 하지만, 필자가 사용할 구체적인 문장 표현까지 정확하게 예측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3. ③

[정의·대조·인과·재진술의 적용]

- ③ (나)에서는 정교화가 새 정보와 기존 지식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고 하였고, (다)는 '이 때문에'라는 표현을 통해 그러한 관계 형성을 원인으로 하여 더 많은 인출 단서가 생긴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따라서 (다)의 인과 관계를 이해하려면 그 원인이 제시된 앞 문장인 (나)와 연결해야 한다. 원인이 (다) 안에만 있으므로 (나)와 연결할 필요가 없다고 본 ③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가)는 정교화가 새 정보를 기존 지식과 관련지어 의미를 확장하는 처리라고 밝혀 정교화의 의미와 범위를 제시하므로 정의에 해당한다.
- ② (나)는 새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라는 동일한 기준에서 단순 반복은 정보의 형태를 유지하고 정교화는 기존 지식과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는 차이를 드러내므로 비교와 대조의 관계로 볼 수 있다.
- ④ (다)의 '단서가 더 많이 형성된다'와 (라)의 '떠올릴 수 있는 경로가 많아진다'는 표현은 다르지만, 정교화된 정보를 나중에 더 쉽게 인출할 수 있다는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라)는 (다)를 재진술한 것이다.
- ⑤ (가)는 정의, (나)는 비교와 대조, (다)는 인과의 결과, (라)는 그 결과의 재진술로 연결된다. 이를 하나의 구조로 파악하면 네 문장을 각각 독립된 정보로 기억하지 않고 '정교화가 기존 지식과의 관계를 형성하여 인출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핵심 판단으로 압축할 수 있다.

4. ①

[두 글의 내용 전개 방식 파악]

- ① (가)는 먼저 본질적 속성과 수적 동일성을 설명하고, 경험과 유전자가 개인의 정체성을 고유하게 결정하지 못함을 밝힌다. 이어 크립키의 기원 본질주의를 소개하고, 알파와 베타를 활용하여 한 개인이 실제와 다른 접합자에서 유래할 수 없다는 논증을 [A]에서 재구성한다. (나)는 (가)의 논증에 사용된 기원 충분성 전제가 기원 본질주의 자체보다 강한 주장임을 밝힌다. 이어 접합자 재 활용 문제를 통해 이 전제의 형이상학적 고유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기원을 물질적 구조가 아니라 수적으로 동일한 접합자의 발생 사건으로 규정하는 대응을 검토한다. 따라서 (가)가 기원 본질주의의 논증을 재구성하고, (나)가 그 논증의 강한 전제를 비판한 뒤 이에 대한 대응을 검토한다고 한 ①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② 두 글은 견해를 시대순으로 제시하지 않으며, 사회적 영향도 평가하지 않는다.
- ③ (가)는 경험과 유전자가 개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인과적 작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기준이 되기 어려움을 밝힌다.
- ④ (가)는 기원을 충분조건으로 보는 견해를 비판하는 글이 아니다. [A]에서 기원 충분성 전제를 활용하여 기원 본질주의의 결론을 논증한다. 또한 (나)는 경험을 대안적 정체성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 ⑤ 두 글의 중심은 집합자의 생물학적 형성이나 인공 복제 기술이 아니라 개인의 수적 동일성과 기원의 본질성에 관한 형이상학적 논의이다.

5. ③

[세부 내용 이해]

- ⑤ (나) 4문단에서는 집합자 재활용 문제가 내가 감마에서 유래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재활용 문제는 기원이 나의 정체성에 필요한 조건이라는 기원 본질주의의 주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물질과 배열이 한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충분조건이라는 전제에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재활용 문제가 내가 감마에서 유래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않는다는 앞부분은 적절하지만, 기원 본질주의의 필요조건을 부정한다고 한 뒷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가) 1문단에서는 실제와 다른 상황을 나에게 가능했던 삶으로 보려면, 그 상황의 주체가 실제의 나와 수적으로 동일해야 한다고 하였다.
- ② (가) 3문단에서는 내가 알파에서 유래한 채 경험이나 성격이 실제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였다. 경험과 성격은 달라질 수 있는 우연적 속성이다.
- ③ (가) 2문단에서는 일란성 쌍둥이가 같은 유전자 구성을 지녀도 서로 다른 개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유전자의 동일성은 질적 유사성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수적 동일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 ④ (나) 1문단에서는 기원 충분성 전제를 '알파에서 유래한 가능한 인물이라면 그 인물이 나와 동일하다.'라는 방향으로 설명하였다.

6. ②

[논증 전제의 기능 파악]

- ② [A]의 기원 충분성 전제는 특정 집합자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이 가능한 상황들을 가로질러 그 집합자에서 생긴 인물을 하나의 개인으로 식별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즉 알파에서 유래한 가능한 인물들을 실제의 나와 동일한 개인으로 식별한다. (나)의 집합자 재활용 문제는 알파와 같은 원자와 배열을 지닌 수적으로 다른 집합자 감마가 형성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만약 특정한 물질과 배열만으로 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알파에서 생긴 아이와 감마에서 생긴 아이가 모두 나라는 부당한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재활용 문제는 기원 충분성 전제를 겨냥한다.

[오답 피하기]

- ① 공동 가능성 전제는 알파와 베타가 한 가능 상황에서 각각 인물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보장할 뿐이다. 그 두 인물이 모두 나라고 하려면 각 기원이 인물을 식별하는 데 충분하다는 기원 충분성 전제가 필요하다.
- ② 기원 충분성의 기능과 재활용 문제의 비판 대상을 모두 정확하게 설명하였다.
- ③ [A]의 둘째 전제는 알파에서 생긴 인물과 베타에서 생긴 인물이

수적으로 구별된다는 전제이다. 한 개인이 상황마다 서로 다른 집합자에서 유래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전제가 아니다.

- ④ [A]는 알파와 베타가 한 상황에서 각각 인물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공동 가능성을 이용해 모순을 도출한다. 두 집합자가 함께 인물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전제하는 것이 아니다.
- ⑤ 기원 충분성을 부정하거나 유보하면 [A]의 논증이 약화될 수는 있다. 그러나 한 논증이 실패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논증이 부정하려던 반대 명제가 참이라고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7. ①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의 구별]

- ① (나) 1문단에 따르면 기원 본질주의는 다음과 같은 방향의 조건 관계를 주장한다.
- 나와 동일한 가능한 인물
- 알파에서 유래한 인물
- 즉 알파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은 내가 나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내가 존재하는 가능한 상황이라면 나는 반드시 알파에서 유래해야 한다.

반면 기원 충분성 전제는 다음과 같은 반대 방향을 추가한다.

- 알파에서 유래한 가능한 인물
- 나와 동일한 인물
- 따라서 기원 본질주의를 받아들여 기원 충분성 전제는 유보한다면, 내가 존재하는 가능한 상황에서 알파에서 유래해야 한다는 필요조건은 인정하면서도 알파에서 유래한 모든 가능한 인물이 반드시 나라고 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①이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기원 본질주의의 필요조건은 유지하고 기원 충분성만 유보한 입장을 정확히 나타낸다.
- ② 알파에서 유래한 모든 인물이 반드시 나인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내가 알파 이외의 기원에서도 유래할 수 있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충분조건의 유보를 필요조건의 부정으로 바꾸었다.
- ③ 알파와 감마가 같은 물질과 배열을 지닌다는 것은 질적으로 같다는 뜻일 뿐이다. 두 집합자는 다른 시점에 형성된 수적으로 다른 집합자이므로, 감마가 곧 나의 기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실제 세계에서 알파가 나에게만 귀속된다는 사실만으로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도 다른 존재의 기원이 될 수 없다는 형이상학적 고유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 ⑤ (가)는 내가 알파에서 유래하면서도 실제와 다른 경험과 성격을 지닐 수 있다고 하였다. 경험과 성격의 차이는 곧 수적 비동일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8. ④

[복수 개념의 사례 적용]

- ④ 민수와 지수는 동일한 유전자 구성과 경험을 가질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집합자 A와 B에서 유래하였다. 따라서 두 사람이 질

적으로 유사하더라도 수적으로 동일한 개인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접합자 C는 A를 이루었던 원자들이 다시 A의 최초 상태와 동일하게 배열되어 형성되었지만, A와는 다른 시점에 형성된 수적으로 다른 접합자이다. 재활용 문제는 이러한 C를 민수의 기원과 동일시해야 한다는 것이 기원 본질주의 자체의 결론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것은 같은 물질과 배열이 개인을 식별하기에 충분하다는 강한 기원 충분성 전제에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기원 본질주의 자체가 C에서 태어난 영수를 민수와 동일한 개인으로 판정해야 한다고 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민수와 지수가 유전자 구성과 경험을 모두 공유하더라도 이는 질적 동일성에 관한 정보이다. 서로 다른 접합자에서 유래한 두 사람의 수적 동일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 ② B는 A와 같은 유전자 구성을 지녀도 서로 다른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형성된 수적으로 다른 접합자이다. 유전자 동일성은 A와 B의 수적 차이를 없애지 않는다.
- ③ 기원 본질주의에 따르면 민수와 동일한 가능한 인물은 민수의 실제 기원인 A에서 유래해야 한다. B에서 유래한 지수는 유전자와 경험이 민수와 같아도 민수와 동일한 개인일 수 없다.
- ④ A와 C의 물질과 배열이 같다는 것은 질적 유사성일 뿐이다. 기원 본질주의 자체가 수적으로 다른 C를 민수의 기원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기원을 물질과 배열만으로 개별화하는 기원 충분성 전제에 제기되는 문제이다.
- ⑤ (나)는 본질주의자가 접합자의 형성 시점이나 인과적 발생 과정을 기원의 개별화 조건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A와 C를 서로 다른 기원으로 구별할 수 있다.

9. ②

[문맥적 어휘]

- ② ①의 '겨냥한다'는 재활용 문제가 기원 충분성 전제를 비판하거나 문제 삼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작품의 형식적 한계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②의 '대상으로 삼았다'가 문맥상 가장 가깝다.

[오답 피하기]

- ① '전제하였다'는 논의나 판단의 출발 조건으로 미리 받아들였다는 의미이다.
- ③ '활용하였다'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자료로 이용했다는 의미이다.
- ④ '제외하였다'는 일정한 범위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 ⑤ '제시하였다'는 판단이나 행동의 근거로 내놓았다는 의미이다.

10. ①

[글의 전개 방식 파악]

- ① 1문단에서는 세금의 부과와 징수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조세 법률주의의 의미와 기능을 제시하였다. 2문단에서는 상속과

증여의 공통 기반인 재산의 무상 이전을 설명하며, 새로운 형태의 재산 이전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어 3문단과 4문단에서는 과세 대상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열거주의와, 상위 개념으로 규정하여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새로운 거래까지 포섭할 수 있게 하는 포괄주의를 각각 설명하고 그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5문단에서는 두 방식이 조세 법률주의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과세 관청·입법자의 판단 절차를 제시하였고, 6문단에서는 납세자 권리 보호와 조세 회피 방지의 균형 속에서 조세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정리하였다. 따라서 윗글은 조세 법률주의를 제시한 뒤, 재산의 무상 이전에 대한 열거주의와 포괄주의의 장단점 및 적용 절차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①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② 윗글은 무상 이전 방식의 역사적 변화를 살피지 않았으며, 조세 회피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거나 유형별 세율을 비교하지도 않았다. 새로운 경제 행위의 등장에 따라 과세 공백과 조세 회피가 발생할 가능성을 설명했을 뿐이다.
- ③ 3문단에서 과세 공백은 과세 관청의 소극성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거래가 법률에 열거된 항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였다. 또한 윗글은 포괄주의의 폐지를 제안한 것이 아니라 포괄주의의 장점과 한계를 함께 제시하였다.
- ④ 조세 정의의 의미는 글의 마지막인 6문단에서 종합적으로 제시된다. 또한 윗글은 열거주의가 포괄주의보다 우월하다는 견해를 반박한 것이 아니라, 두 방식이 각각 납세자 권리 보호와 조세 회피 방지에서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 ⑤ 2문단에서 상속과 증여는 모두 재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공통 기반을 가진다고 하였지만, 둘의 차이를 중심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또한 1문단과 5문단에서 법률상 근거가 없는 과세는 경제적 필요나 실질적 유사성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1. ③

[세부 내용 파악]

- ③ 4문단에서는 법률에 포괄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 과세 관청이 새로운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검토하여 그 거래가 법률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포괄적 기준의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그 적용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5문단에서는 포괄적 기준이 존재하더라도 새로운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법률 문언과 입법 목적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세 회피 의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③은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만 하면 조항의 경계가 불분명한 거래에도 원칙적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포괄적 기준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까지 과세를 허용한 것이므로 윗글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③이 정답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조세 법률주의는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세율, 징수 절차 등의 핵심 사항을 법률에 근거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자의적 과세를 막는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납세자가 세 부담을 예측할 수 있게 하므로 적절하다.
- ② 열거주의에서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나열된 대상만 과세한다. 따라서 새로운 무상 이전이 경제적 실질상 기존 거래와 유사하더라도 열거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면 과세하지 못해 과세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조세 정의는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행위에 공평하게 세 부담을 지우는 것뿐 아니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과세를 막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도 포함한다. 두 요청의 균형이 필요하다 하므로 적절하다.
- ⑤ 법률에 포괄적 기준이 없고 과세 대상만 열거되어 있다면,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거래를 유추하여 과세해서는 안 된다. 과세 공백은 입법자가 장래의 거래에 적용될 법률을 보완함으로써 해소해야 하므로 적절하다.

12. ③

[내용 추론]

- ⑤ 1문단에서는 조세 법률주의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과세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이라고 하였다. 4문단에서는 포괄주의가 새로운 형태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유사한 경제적 실질에 유사한 세 부담을 지우는 데 유리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포괄적 기준의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과도하게 확대되면 납세자가 자신의 세 부담을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6문단에서도 조세 정의는 조세 회피 방지뿐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과세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보장을 함께 요구한다고 정리하였다. 따라서 포괄적 기준이 조세 회피를 줄이는데 기여하더라도 그 경계가 불명확하면 조세 법률주의가 보호하려는 재산권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이익과 충돌할 수 있다고 추론한 ⑤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과세 대상을 세부적으로 열거하면 납세자가 법률 문언을 통해 세 부담을 쉽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예측 가능성은 높아진다. 반면 새로운 거래가 열거되지 않으면 조세 회피와 과세 공백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①은 두 효과를 모두 반대로 서술했다.
- ② 포괄적 기준이 명확하면 새로운 거래가 그 법률상 기준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기 쉬워질 수 있다. 그러나 과세 관청이 법률 문언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률의 문언과 입법 목적 안에서 판단해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경제적 실질이 같더라도 법률상 과세 근거가 없다면 동일하게 과세할 수 없다. 조세 정의는 공평한 과세뿐 아니라 법률 근거와 예측 가능성도 요구하므로, 법률 근거 없이 형평만을 이유로 과세해야 한다고 본 ③은 적절하지 않다.

- ④ 과세 공백은 입법자가 법률을 보완하여 장래의 거래에 적용함으로써 해소해야 한다. 위글은 이미 완료된 거래에 개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소급 적용은 오히려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3. ②

[구체적 사례 적용]

- ② A국의 법률은 현금·토지·주식만을 과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포괄하는 일반 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갑이 자녀에게 이전한 디지털 이용권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상 이전에 해당하더라도, 이용권이 열거된 대상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할 수는 없다. 이는 5문단에서 포괄적 기준 없이 과세 대상만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거래를 기존 항목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유추하여 과세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과 부합한다. 반면 B국은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재산상 이익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무상 이전된 경우를 과세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을이 회사를 거쳐 자녀에게 디지털 토큰을 이전한 행위가 해당 포괄 조항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의 간접적 무상 이전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A국에서는 유사성만으로 과세할 수 없지만, B국에서는 법률에 마련된 포괄적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한 ②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갑과 을의 행위가 모두 경제적 가치를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라는 점은 공통적이다. 그러나 조세 법률주의에 따르면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법률 문언의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하게 과세할 수 없다. A국에는 포괄적 법률 근거가 없으므로 두 행위를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과세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A국에서 이용권에 과세할 수 없는 것은 이용권 이전이 무상 이전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다. 갑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용권을 자녀에게 대가 없이 이전했으므로 경제적 실질상 무상 이전에 해당한다. 다만 법률이 이용권을 열거하지 않았고 포괄 조항도 없으므로 과세하지 못하는 것이며, 이는 과세 공백에 해당할 수 있다.
- ④ B국에 포괄 조항이 있더라도 을에게 조세 회피 의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할 수는 없다. 5문단에서는 새로운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법률 문언과 입법 목적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조세 회피 의도만으로는 과세할 수 없다고 하였다.
- ⑤ A국의 법률은 현금·토지·주식을 과세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는 일반 조항이 없다. 따라서 열거된 항목을 단순한 예시로 보아 디지털 이용권을 유추 과세할 수 없다. 과세 공백은 입법자가 법률을 보완하여 해결해야 한다.

14. ④

[세부 내용의 이해]

- ④ 본문의 비례 관계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곡률 반경 r 이 커질수록 편향각 δ 는 커진다. 이때 $\psi = 90^\circ - \delta$ 이므로 이탈 각 ψ 는 작아진다. 따라서 곡률 반경이 커질수록 편향각이 작아지고 이탈 각이 커진다는 ④는 본문의 변수 방향을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① 편향각은 $90^\circ - \psi$ 로 정의되므로 편향각과 이탈 각의 합은 90° 이다. 편향각이 클수록 흐름은 고체 표면 쪽으로 많이 휜다.
 ② 유속이 낮아지면 관성에 따른 이탈 경향이 약해져 편향각이 커진다. 임계값 아래에서는 액체가 안정적으로 이탈하지 못할 수 있다.
 ③ 전기 젖음 처리는 접촉각을 작게 한다. 이에 따라 젖음성과 부착력이 커져 찰주전자 효과가 강화될 수 있다.
 ⑤ 점성의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론은 연구팀이 실험한 빠른 관성 지배 흐름에 한정된다.

15. ②

[수량 관계의 적용]

- ② 본문에 따르면 $\delta \propto r\sqrt{(1 + \cos \theta)} / U$ 이므로 조건 변화 후의 편향각·곡률 반경·접촉각·유속을 각각 δ' [델타 프라임], r' [알 프라임], θ' [세타 프라임], U' [유 프라임]이라고 할 때, 조건 변화 전후의 편향각 비는 다음과 같다.

$$\delta'/\delta = (r'/r) \times \sqrt{((1 + \cos \theta')/(1 + \cos \theta))} \times (U/U')$$

유속을 기존의 $1/2$ 로 낮추었으므로 $U/U' = 2$ 이다. ②에서는 곡률 반경이 기존의 $1/2$ 이고, $1 + \cos \theta$ 가 기존의 $1/4$ 이므로 제곱근 항은 $1/2$ 가 된다.

$$\delta'/\delta = 1/2 \times 1/2 \times 2 = 1/2$$

따라서 편향각을 기존 값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②이다.

[오답 피하기]

- ① $1/2 \times 1 \times 2 = 1$ 이므로 편향각은 기존과 같다.
 ③ $1 \times 1/2 \times 2 = 1$ 이므로 편향각은 기존과 같다.
 ④ $2 \times 1/4 \times 2 = 1$ 이므로 편향각은 기존과 같다.
 ⑤ $2 \times 1/2 \times 2 = 2$ 이므로 편향각은 오히려 기존의 2배가 된다.

16. ③

[복수 변수와 통제 조건의 적용]

- ③ Q와 S는 유속과 접촉각이 같지만, S의 곡률 반경은 Q의 $1/2$ 이다. 또한 두 점성의 차이는 점성의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관성 지배 범위에 있으므로, Q와 S를 비교할 때 점성 차이를 핵심 변수로 볼 수 없다. 비례식에서 다른 조건이 같을 때 편향각은 곡률 반경에 비례하므로 S의 편향각은 Q보다 작다. 편향각이

작으면 $\psi = 90^\circ - \delta$ 에 따라 이탈 각은 커진다. 따라서 액체는 S에서 더 쉽게 이탈하고 외벽을 따라 흐르는 경향은 줄어든다.

[오답 피하기]

- ① P는 Q보다 유속이 크다. 유속이 커지면 편향각은 작아지고 이탈 각은 커지므로 선택지의 설명은 반대이다.
 ② R은 Q보다 접촉각이 크다. 접촉각이 커지면 젖음성은 작아지고 $1 + \cos \theta$ 도 작아지므로 편향각은 작아진다.
 ④ P의 유속은 Q의 2배이면 편향각은 Q의 절반이 된다. 그러나 이탈 각은 편향각의 2배가 아니라 $90^\circ - \delta$ 이므로, P의 이탈 각이 Q의 2배라고 할 수 없다.
 ⑤ R과 Q는 유속과 곡률 반경이 같지만 접촉각이 다르다. 편향각에는 $1 + \cos \theta$ 가 반영되므로 두 실험의 편향각이 같다고 할 수 없다.

17. ㉠

[문맥적 어휘 의미]

- ⑤ ㉠의 '무시하다'는 이 문맥에서 점성의 영향이 매우 작아 계산이나 판단에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경시하다'는 어떤 대상의 가치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한다는 뜻이므로 문맥에 맞지 않는다.
 ① '작용하다'는 특정한 기능이나 영향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기능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② 메니스커스와 '연결된' 영역은 메니스커스와 '이어진' 영역을 의미한다.
 ③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그 크기에 의해 '좌우된다'는 뜻이다.
 ④ 찰주전자 효과를 '강화한다'는 것은 그 현상을 더욱 강하게 하거나 '심화한다'는 뜻이다.

18. ㉡

[실제 몰락과 허위의 성공을 통한 장면 대비]

- ④ [A]에서는 '봉두난발'한 머리와 때가 낀 얼굴, 낡고 더러운 옷차림 등 춘풍의 비참한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늪이 아니침을 뵈으리오."라는 서술자의 평가를 덧붙여 그의 실제 몰락을 회화화한다. 반면 [B]에서는 춘풍이 비장의 도움으로 되찾은 돈을 자신이 장사하여 벌어들인 것처럼 꾸미고, 아내가 차린 음식까지 흡족하며 성공한 사람인 양 허세를 부린다. 이어 아내가 다시 비장의 모습으로 나타나 춘풍을 호령하므로, [B]는 춘풍이 꾸며낸 성공과 그 허위가 폭로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오답 피하기]

- ① [A]가 춘풍의 몰락한 처지를 외양으로 드러낸다는 점은 적절하지만, [B]에서 춘풍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생활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 오히려 돈을 자신의 장사 성과인 것처럼 꾸미고 다시 평양으로 내려가겠다고 말한다.
 ② [A]에는 춘풍만 비장의 정체를 모르는 정보 격차가 나타난다. 그러나 [B]에서 그 격차가 해소되기 전에 춘풍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은 제시되지 않으며, 춘풍은 끝까지 허세와 거만함을 드러낸다.

- ③ [A]에서 서술자의 평가를 통해 춘풍이 회화화된다는 점은 적절하다. 그러나 [B]의 돈은 춘풍이 실제 장사로 거둔 성과가 아니라 아내가 비장의 권한을 이용하여 추월에게서 받아 낸 것이다.
- ⑤ [A]에서는 춘풍의 외양이 객관적으로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늬가 아니 침을 뱉으리오.”와 같은 서술자의 직접적인 평가가 개입한다. 또한 [B]에서는 아내의 내면 독백이 아니라 비장의 의복을 입고 나타나는 행동과 춘풍을 호령하는 발화를 통해 정체 폭로가 이루어진다.

19. ②

[추월의 책임 회피와 변제 강제]

- ② 추월은 형벌과 죽음의 위협을 받은 뒤 오천 냥을 바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춘풍의 돈을 자신이 가져갔다고 자백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처음에는 “춘풍이 가져온 돈 소녀가 어찌 아오리까?”라고 반문하며 자신은 그 돈에 관해 아는 바가 없다는 태도를 드러냈다. 이후에도 추월은 영문의 분부에 따라 돈을 바치겠다고 하였을 뿐, 자신이 춘풍의 돈을 가져가거나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비장이 추월의 금전 취득에 관한 자백을 근거로 오천 냥의 변제를 명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비장은 춘풍에게 호조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진술하게 하고, 춘풍이 추월과 함께 놀며 돈을 모두 썼다고 말하자 추월을 잡아 오게 한다. 이후 공적 권위와 형벌을 이용하여 추월에게 돈을 바치도록 강제한다.
- ③ 춘풍은 회계 비장이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의 명령에 따라 추월에게서 돈을 받아 서울로 올라온다. 서울에서는 그 돈을 자신이 장사하여 얻은 이익인 것처럼 내세우며 허세를 부린다.
- ④ 아내는 평양에서 회계 비장의 공적 지위와 형벌권을 이용하여 춘풍과 추월을 제압한다. 서울에서는 곧바로 정체를 밝히지 않고 장사의 이익을 묻는 척하여 춘풍이 스스로 거짓 성공담과 허세를 드러내게 한다.
- ⑤ 춘풍은 돈을 되찾아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음식 맛을 흠잡고 다시 평양으로 내려가겠다고 말한다. 이는 경제적 손실은 해결되었지만 춘풍의 방탕함과 허세는 아직 교정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20. ⑤

[화자의 정보 상태에 따른 질문 기능의 차이]

- ⑤ ㉠과 ㉡은 모두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지만, 화자가 알고 있는 정보와 발화의 기능은 서로 다르다. ㉠에서 비장은 춘풍이 호조 돈을 탕진한 사실을 알고 있으나,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춘풍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하려 한다. 따라서 ㉠은 청자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며, 동시에 공금을 함부로 사용한 춘풍을 비난하

는 태도도 내포한다. 반면 ㉡의 화자인 춘풍의 아내는 자신이 회계 비장으로서 추월에게 돈을 바치게 하고 춘풍에게 서울로 돌아오라고 지시한 당사자이므로, 춘풍의 귀환 경위와 돈의 출처를 이미 알고 있다. 따라서 ㉡은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평양에서 있었던 일을 모르는 척하면서 춘풍의 반응을 드러나게 하는 질문이다. 그 결과 춘풍은 돈을 자신의 장사 성과인 것처럼 꾸미며 허세를 부린다.

[오답 피하기]

- ① ㉠에서 비장은 춘풍이 호조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춘풍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하려 한다. 따라서 이미 확인한 내용을 재차 묻거나 앞선 진술과의 일관성을 시험하는 질문으로 볼 수 없다.
- ② ㉡에서 추월은 비장이 문제 삼는 ‘춘풍이 가져온 돈’을 되받아 말하지만, “소녀가 어찌 아오리까?”라고 반문하여 자신은 그 돈에 관해 아는 바가 없다는 태도를 드러낸다. 따라서 돈에 대한 자신의 인지나 관련성을 인정한 뒤 변제 책임만 부인하는 말이 아니다.
- ③ ㉢은 공금 손실의 책임을 관아나 백성에게 돌려 추월의 처벌을 완화하려는 말이 아니다. 영문이나 본관이 대신 갚거나 백성에게 거두어 충당할 수 없음을 강조하여, 모르쇠로 발뺌하는 추월을 비난하고 변제를 압박하는 말이다.
- ④ ㉣의 아내는 춘풍이 어떤 경위로 돈을 가지고 돌아왔는지를 이미 알고 있으므로 귀환 경위를 다시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춘풍의 반성 여부를 직접 묻기보다, 평양에서 있었던 일을 모르는 척함으로써 춘풍이 자신의 거짓 성공담과 허세를 스스로 드러내게 한다.

21. ③

[경제적 해결과 내적 교정의 불일치]

- ③ 춘풍이 돈을 가지고 서울로 돌아온 것은 아내가 회계 비장의 공적 권위와 형벌권을 이용하여 추월에게 변제를 강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므로, 경제적 위기가 해결되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춘풍은 귀환한 뒤 돈을 자신이 장사하여 번 것처럼 꾸미고, 아내가 차린 음식을 흠잡으며 다시 평양으로 내려가겠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춘풍의 방탕한 태도와 허세까지 이미 교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아내가 다시 비장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춘풍의 개선이 완료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리석음을 폭로하고 깨달음과 변화를 촉구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 ① 독자는 회계 비장이 춘풍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춘풍은 이를 알지 못한다. 이에 독자는 아내 앞에서 초라한 사환으로 행동하는 춘풍의 실제 처지와 무지를 함께 인식하게 되므로, 정보 격차가 그의 추락을 희극적으로 부각한다는 감상은 적절하다.
- ② 춘풍의 아내는 가정 안에서 아내의 신분으로 남편을 직접 통제하는 대신, 회계 비장으로 남장하여 남성 권리의 지위와 형벌권을 행사한다. 이를 통해 추월에게 돈을 변제하도록 하므로, 사적

관계에서 행사하기 어려웠던 통제력을 공적 권위로 전환했다는 감상은 적절하다.

- ④ 아내는 춘풍이 돈을 가지고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자신이 회계 비장이었음을 바로 밝히지 않는다. 장사의 이익을 묻는 척함으로써 춘풍이 돈을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꾸미고 허세를 스스로 드러내게 하므로, 정제 폭로의 지연이 거짓 성공담을 노출하는 기능을 한다는 감상은 적절하다.
- ⑤ 아내는 춘풍이 허세를 충분히 드러낸 뒤 다시 비장의 의복을 입고 나타나 그를 호령한다. 이는 평양에서 행사했던 공적 권위를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 다시 불러들여 해당 장면에서 춘풍과 아내 사이의 우열을 뒤집고, 춘풍에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2. ②

[세 작품의 의미 구조 비교]

- ② (가)는 바람, 불빛, 용골, 눈송이 등 항구의 풍경을 감각적으로 재구성하며, 그 속을 조용히 이동하는 화자의 차분하고 가라앉은 내면 상태를 드러낸다. (다)는 숲속에서 까치를 직접 관찰한 경험을 통해 민화를 기발한 상상으로만 보았던 기존 판단을 수정한다.

[오답 피하기]

- ① (나)에서 화자는 폭설로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기회로 의미화한다. 그러나 (가)의 화자가 항구의 사물에 과거의 기억을 투사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 ③ (다)에서 글쓰이는 까치 소리가 희망적으로 들린다는 점에서 반가운 편지를 예고한다는 전승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나)의 화자는 고립이 공포로 변할 수 있음을 인식한 뒤에도 고립의 소망을 유보하거나 철회하지 않는다.
- ④ (가)에서 용골들이 항구 안을 들여다보는 모습은 화자의 감각에 의해 새롭게 포착된 외부 풍경이지, 화자와 정박한 배들이 실제로 교감하여 고독이 해소된 장면은 아니다. (다)에서도 글쓰이가 민화와 동일한 장면을 직접 본 것은 아니다.
- ⑤ (나)는 먹이를 뿌리는 헬리콥터와 포탄을 뿌리던 헬리콥터의 상반된 기능을 유지하면서 현재의 장면에 과거의 폭력적 기억을 중첩한다. (다)에서 집의 정서는 건축물의 실용성이 아니라 자연스러움과 정서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확장된다.

23. ③

[특정 구절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 비교]

- ③ ㉠은 지전의 그림을 구겨 넣고 담배를 끈 뒤, 화자가 격한 감정을 표출하지 않은 채 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내면 상태를 보여 준다. ㉡은 헬리콥터가 나타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는데도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않겠다는 선택이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고립의 의미를 지키려는 능동적 의지를 드러낸다.

[오답 피하기]

- ① ㉠에서 화자가 ‘배 있는 데’로 이동하고 있으나, 실제로 배에 오르거나 곧바로 항구를 떠나려 한다고 명시되지는 않는다. ㉡의 화자는 구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구조에 응하지 않기로 선택한다.
- ② ㉠의 화자는 적합한 항구 풍경 속에서도 이동을 멈추지 않는다. ㉡ 역시 주어진 고립을 수동적으로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고립된 상황을 지속하기로 능동적으로 선택한다.
- ④ ㉠ 앞에서 화자와 정박한 배들이 실제로 교감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 ㉡에서도 화자는 현재의 헬리콥터와 과거의 상처를 화해시키기보다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한다.
- ⑤ ㉠에서는 화자가 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할 뿐, 항구를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직접 표명하지 않는다. ㉡의 구조 거부도 공포로 인한 체념이 아니라, 두려움을 인식하면서도 고립의 의미를 지키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24. ④

[시상 전개에 따른 화자의 태도 이해]

- ④ [D]에서는 야생조와 짐승에게 먹이를 뿌리는 헬리콥터의 현재 모습과 젊은 심장을 향해 포탄을 뿌리던 과거의 모습이 중첩된다. 화자는 헬리콥터가 지닌 현재와 과거의 상반된 면모를 함께 환기하면서도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한다. 따라서 현재의 구호 행위를 신뢰하여 고립에서 느끼는 불안을 해소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A]에서 화자는 ‘못 잊을 사람’과 한계령을 넘다가 폭설을 만나 ‘기꺼이 묶이기’를 바란다.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B]의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에서는 물리적 고립을 넘어 두 사람이 운명적으로 결속되기를 바라는 태도가 드러난다.
- ② [C]에서 폭설의 ‘풍요’는 날이 어두워지면서 ‘공포’로 변하지만, 화자는 헬리콥터가 나타나도 손을 흔들지 않겠다고 한다. 두려움을 인식하면서도 고립된 상황을 지속하려는 의지가 유지된다.
- ③ [D]에서는 야생조와 짐승에게 먹이를 뿌리는 헬리콥터에 젊은 심장을 향해 포탄을 뿌리던 과거의 모습이 겹쳐진다. 이로써 현재의 구호 장면에 전쟁의 폭력적 기억이 중첩된다.
- ⑤ [E]의 ‘짧은 축복’에는 고립의 시간이 영속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화자는 그 일시적인 순간을 난생처음 맞이하는 소중한 축복으로 받아들인다.

25. ②

[수필의 세부 내용과 표현 기능 이해]

- ② ㉠은 제비집과 까치집을 각각 단아한 가정부인의 살림집과 쇠락하고 풍류스러운 시인의 거처에 비유하여 두 집이 지닌 정서적 차이를 구체화한다. ㉡에서는 이러한 정서적 기준이 인간의 건축물인 아파트를 평가하는 데까지 확장된다. 그러나 평가 대상은 건축물의 실용성이 아니라 자연스러움과 한국적인 집의 정서이

다.

[오답 피하기]

- ① 글쓰이는 효조나 길조와 같은 전승된 의미와 까치 소리에서 직접 느끼는 반가움을 구별한다. 다만 까치 소리가 희망적으로 들리므로 반가운 편지를 예고한다는 말은 소리의 느낌과 조응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받아들인다.
- ③ 아파트가 '사람장'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가격이나 시설과 같은 물질적 수준이 아니라 글쓰이가 집에서 중시하는 자연스러움과 정서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 ④ 글쓰이가 직접 본 것은 노옹의 배 위에 까치가 서 있는 민화 속 장면 자체가 아니다. 사람 곁에서 거리낌 없이 노는 까치를 보고, 민화 속 장면이 단순한 기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 풍경에 근거한 것임을 깨달은 것이다.
- ⑤ 현재의 관찰을 통해 이루어진 판단 수정은 실경에 맞지 않는 듯한 시구도 실제 경험을 통해 사실에 부합함이 확인될 수 있다는 사회의 사례로 뒷받침된다. 마지막에서는 새롭게 이해한 민화의 장면이 다시 환기된다.

26. ③

[외적 준거를 활용한 작품 감상]

- ③ '조용한 마음'에서 화자의 차분하고 가라앉은 내면을 읽을 수는 있다. 그러나 화자는 이어서 용골을 고개를 든 존재처럼, 눈송이를 하늘의 새가 따르는 것처럼 포착한다. 따라서 화자가 항구의 외부 사물에 대한 감각적 지각을 거두고 자신의 내면에만 침잠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화자는 정박 중인 용골들이 고개를 들어 항구 안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눈송이를 하늘의 새들이 따르는 것처럼 포착한다. 이는 항구라는 장소에서 외부 대상을 자신의 감각 속에서 새롭게 지각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 ② 화자는 폭설이 처음에는 '풍요'이지만 날이 어두워지면 '공포'로 변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그럼에도 못 잊을 사람과 함께 한계령에 묶이는 상황을 '눈부신 고립'이자 '짧은 축복'으로 받아들인다.
- ④ 화자는 야생조와 짐승에게 먹이를 뿌리는 헬리콥터의 모습에 젊은 심장을 향해 포탄을 뿌리던 과거의 모습을 겹쳐 놓는다. 이는 현재의 감각적 장면 위에 과거의 폭력적 기억이 중첩된 것으로, <보기>의 설명에 부합한다.
- ⑤ 글쓰이는 민화 속 까치와 노옹의 모습을 기발한 상상으로만 여겼지만, 정릉 숲속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까이 노는 까치를 직접 관찰한 뒤 그 장면이 실제 풍경에 근거한 것임을 깨닫는다. 직접 경험을 통해 기존 판단이 수정된 것이다.

27. ④

[서술 방식의 이해]

- ④ 윗글에서는 전문적 치료 능력을 지닌 의료진과 인간적 교감이 결여된 의료진이 서로 다른 인물군으로 나뉘어 제시되지 않는다.

'나'는 동일한 의료진을 질병을 제거하는 '백혈구'와 '항생제'에 비유하여 그들의 전문적 효율성과 권위를 인정하는 동시에, 그들의 무표정하고 뻔뻔한 얼굴에서 정서적 온기의 결핍을 발견한다. 따라서 치료 능력과 인간적 교감의 부재는 서로 다른 인물군의 대립을 통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의료진에게 공존하는 두 속성으로 제시된다. 그러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병실 앞에 이름이 적힌 문패가 걸리고 환자복을 받은 뒤, '나'는 평소에 지니고 있던 자신의 이미지가 무너졌다고 느끼며 다른 사람의 부축에 의존하고 의사에게 매달리고 싶어 한다. 병원의 외적 표지가 '나'의 자기 인식과 행동을 환자의 역할에 맞게 변화시키는 과정이 연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 ② 전반부의 금붕어와 민물고기 이미지는 병원의 규율에 순응하며 수동적인 입원 생활에 안주하는 환자들과 '나'의 모습을 나타낸다. 후반부의 바닷속 해초와 생물 이미지는 차갑고 우울한 병동 안에서도 계속 움직이며 생명을 유지하는 환자들의 모습을 드러낸다. 물과 생물의 이미지가 반복되면서도 서로 다른 의미로 변주되고 있다.
- ③ 미안수 광고에 관한 기억은 독립적인 과거 사건을 재현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 아니다. 광고 속 사내의 세련된 웃음이 타인에게 미치는 심리적 효과를 현재 의료진의 무표정한 태도와 비교함으로써, 의료진에게 결여된 웃음의 의미를 해석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 ⑤ 윗글에는 '불안하면서도 위안을 받아', '억울해', '마음에 들었다'와 같이 '나'의 감정을 직접 드러내는 진술이 나타난다. 또한 의료진이 웃으며 증세를 묻는다면 환자가 심리적 위안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적 진술과 금붕어·범선·백혈구·귀족 식물 등의 비유적 연상이 결합되어 병원 경험에 대한 '나'의 주관적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28. ②

[구절의 문맥적 의미 파악]

- ② ㉠에서 '나'는 환자들이 물고기처럼 병원을 부유하는 수동적인 생활을 마음에 들어 하고, 자신을 오랜 방황 끝에 고향에 닿을 내린 범선에 비유한다. 그러나 이는 환자에게 부여된 병원의 규율을 자율적인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능동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앞서 '나'가 '안이한 체념'으로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빈 시간이면 잠을 자는 생활에 만족하게 되었다고 한 데서 알 수 있듯, 병원의 규율에 순응하면서 수동적인 입원 생활을 안정과 휴식의 상태로 받아들이는 태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에서 '나'는 병실 앞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문패가 걸리고 환자복을 받은 뒤부터 자신이 정말 아프기 시작했다고 느낀다. 병원의 명칭과 복장이라는 외적 표지가 기존의 자기 이미지를 무너뜨리고, '나'가 환자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여 의존적인 행동을 보이게 한 것이다.

- ③ ㉔의 ‘생생한 경이’는 어둡고 차갑게 보이는 병동 안에서도 수많은 환자가 계속 움직이며 생명을 유지하는 모습을 바라본 ‘나’의 반응이다. 병동의 우울하고 차가운 외관과 그 내부에서 지속되는 생명 활동이 함께 포착되고 있다.
- ④ ㉔에서 ‘나’는 의료진을 균을 잡아먹는 ‘백혈구’에 비유하고, 그들의 얼굴에서 ‘강력한 항생제의 효능’을 느낀다. 이는 의료진이 질병을 제거하는 전문적 효율성을 지녔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그들의 무표정하고 뻣뻣한 얼굴에서 인간적 온기가 결여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 ⑤ ㉔의 ‘온상 속의 귀족 식물’은 의료진이 수면·식욕·피로·성욕과 같은 욕구를 약물이나 전용 시설을 통해 즉시 처리하는 모습을 비판적으로 비유한 것이다. 이는 그들에게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욕구가 퇴화된 것 같다는 ‘나’의 주관적 판단을 드러낸다.

29. ③

[특정 구간의 내용 이해]

- ⑤ [A]에서 ‘나’는 의료진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거나 원하는 것을 제공하면 웃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에게 특별히 가려운 곳이나 간절히 원하는 것이 없는 듯하여 첫 시도가 실패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는 의료진에게 자연스러운 욕구와 감정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임상적으로 입증한 것이 아니다. ‘없는 듯했기 때문이다’와 같은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이는 의료진의 상태에 대한 ‘나’의 주관적인 추측과 판단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미안수 광고 속 웃음은 화장품의 물리적 효능을 직접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웃음이 광고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매력과 심리적 효과를 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비교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나’는 의료진의 얼굴에 결여된 웃음의 의미를 파악한다.
- ② ‘나’는 의료진이 내장을 자르고 뼈를 긁을 수 있는 전문적 능력과 권위를 지녔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전문적 권위만으로는 환자에게 필요한 심리적 위안까지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의료진이 웃으며 증세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③ 처음에 ‘나’는 의료진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고 관찰과 진단을 받는 대상이었다. 그러나 [A]에서는 ‘스스로의 청진기’를 들고 의료진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웃는지를 알아내려 하므로 진단받던 환자가 의료진을 관찰하고 진단하는 주체로 위치를 바꾸려는 태도가 나타난다.
- ④ ‘나’는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 주거나 원하는 것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면 의료진의 웃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의료진을 웃기려는 첫 시도는 웃음이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을 통해 유발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30. ⑤

[외적 준거를 활용한 작품 감상]

- ⑤ <보기>에서는 제도 구성원들이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적 감정과 자발적인 욕망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윗글에서 의료진은 잠을 자야 할 때 수면제를 먹고, 배가 고프면 전용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며, 피로와 성욕도 약물을 이용해 처리한다. ‘나’는 이러한 의료진을 ‘온상 속의 귀족 식물’에 비유하고,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욕구 본능이 퇴화된 것 같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는 의료진이 제도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욕구와 인간적 활력을 회복한 모습이 아니라, 제도화된 생활 속에서 감정과 욕망이 약화된 듯한 모습이다. 그러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병실 앞에 걸린 ‘문패’와 ‘환자복’은 ‘나’를 병원의 환자로 표시하는 제도적 표지이다. 이를 받은 뒤 ‘나’는 기존의 자기 이미지가 무너졌다고 느끼고, 자신의 얼굴에서 병색을 발견하며 다른 사람의 부축에 의존한다. 이는 제도적 표지가 ‘나’의 자기 인식을 환자 역할에 맞게 변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나’는 아침마다 체온을 재는 ‘모범 환자’가 되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으며 빈 시간이면 잠을 자는 생활에 익숙해진다. 이는 ‘나’가 병원의 규율과 절차를 받아들이면서 환자에게 요구되는 행동을 내면화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③ ‘나’는 환자들이 양순한 물고기처럼 병원을 부유하는 수동적인 생활을 마음에 들어 하고, 자신을 오랜 방황 끝에 고향에 닿을 내린 범선에 비유한다. 이는 제도에 의해 보호되고 통제되는 입원 생활을 안정과 휴식의 상태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처음에 ‘나’는 의료진에게 몸을 맡기고 관찰과 진단을 받는 대상이었다. 이후에는 ‘스스로의 청진기’를 들고 의료진의 욕망과 웃음의 조건을 알아내려 하므로, 제도의 대상이었던 환자가 제도 구성원을 관찰하고 진단하는 주체로 위치를 바꾸려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31. ㉔

[작품 간 표현상 공통점 파악]

- ② (가)의 ‘악위’는 높이 솟은 산의 형세를, ‘능강동이 맑고 깊어’는 공간의 깊이를 드러내어 황강 구곡의 공간적 특성을 구체화한다. (나)의 ‘높으나 높은 나무’는 화자가 놓인 물리적·정치적으로 위태로운 위치를 나타낸다. (다)의 ‘철령 높은 고개’와 ‘구중심처’는 유배지로 향하는 화자와 궁궐에 있는 임 사이의 공간적 거리를 드러낸다. 따라서 세 작품은 모두 공간의 높이나 깊이를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특성이나 화자가 놓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

[오답 피하기]

- ① (나)는 ‘벗님네야’라고 자신을 위태롭게 만든 대상에게 말을 건네고, (다)는 ‘저 구름아’라고 자연물에 말을 건네며 자신의 소망을 드러낸다. 그러나 (가)의 ‘어디매오’는 화자가 각 곡의 위치를 스스로 묻고 답하는 자문자답의 표현으로, 자연물에 간절한 요구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다.

- ③ (가)에 가을 달을 뜻하는 '추월'이 나타나지만, 계절이 순환하는 과정은 제시되지 않는다. (나)와 (다)에도 계절의 순환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가)의 중심 정서는 현재 삶에 대한 회한이나 상실감이 아니라 황강의 자연과 그 공간에 깃든 학문적 전통에 대한 감탄과 자부심이다.
- ④ (가)는 현재의 황강을 과거의 강학 공간과 연결하지만, 임과 멀어진 현실에 대한 원망이나 좌절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다)에는 유배 상황에서 비롯된 억울함과 임금에 대한 원망이 나타나지만,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그러한 정서가 점차 깊어지는 과정은 제시되지 않는다. (나)에도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가)는 '몇 곡은 어디매오'라는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각 곡의 경관을 차례로 제시한다. 그러나 (나)와 (다)에는 동일한 시구나 통사 구조의 반복이 나타나지 않으며, 세 작품 모두에서 화자의 정서가 단계적으로 변화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2. ③

[시구의 문맥적 의미와 기능 파악]

- ③ ㉠은 수많은 봉우리가 겹친 곳에 끝없이 안개가 펼쳐진 모습을 제시하여 화암도의 아득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형성한다. ㉡은 흰 구름과 밝은 달이 어우러진 병산을 옥황상제의 거처인 옥경에 견주며,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신선에 비유하여 병산의 신선적 분위기를 강화한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황강 일대 전체가 속세와 단절된 선계라고 볼 수는 없다. 작품에는 개 짖는 소리와 닭 우는 소리, 강학의 현송, 노 젓는 소리 등 인간의 생활·학문·유람과 관련된 요소가 함께 나타난다. ㉢은 일부 경관에 부여된 신선적 분위기를 황강 전체의 성격으로 과도하게 확대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의 '천봉이 합쳐진 데'는 수많은 봉우리가 겹쳐진 산세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고, '한없는 연화'는 그곳에 끝없이 펼쳐진 안개를 나타낸다. 봉우리와 안개가 어우러진 경관은 화암도의 공간을 아득하게 보이도록 하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강화한다.
- ② ㉠의 '현송'은 옛 강학 공간인 구재에서 이루어지던 학문적 전통이 현재의 황강에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은 병산 위에 있는 사람들을 신선에 비유하여 자연 경관에 인간적·신선적 의미를 더한다. 두 표현은 각각 학문적 전통과 자연 속 인간의 모습을 통해 황강의 공간적 의미를 확장한다.
- ④ ㉢은 현재 울려 퍼지는 현송이 옛 구재를 이었다고 하여 과거의 강학 전통과 현재의 황강을 연결한다. ㉣에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화자가 탄 배의 노 젓는 소리인 도가성이 깊이 잠든 용을 깨운다고 하였다. 이는 인간의 움직임에 의해 자연의 신령한 기운이 깨어나는 순간을 형상화하여 인간과 자연이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 ⑤ ㉣의 '탄성'은 계곡을 울리는 여울 소리를, '악위'는 높이 솟은 산의 형세를 나타낸다. 이들이 계곡을 흐르는 듯하다고 과장함으로

써 자연의 웅장한 형세를 부각한다. ㉤은 옥경과 같은 병산 위의 사람들을 신선에 비유하여 병산 경관의 신비롭고 탈속적인 분위기를 강화한다.

33. ④

[공간 이미지와 자연물의 기능 비교]

- ④ ㉠의 '높으나 높은 나무'는 타인의 권유로 화자가 올라가게 된 물리적으로 위태로운 위치인 동시에, 모함으로 인해 불안정해진 화자의 정치적 처지를 비유한다. 화자는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 일 자체보다 죽음으로 인해 임을 다시 보지 못하는 일을 더욱 서럽게 여긴다. 따라서 나무의 물리적 위험은 임과 단절될 수 있다는 관계적 위기로 의미화된다. ㉡의 구름은 철령을 넘어 임이 있는 구중심처로 이동할 수 있는 자연물이다. 화자는 자신의 원통한 눈물을 비로 삼아 구름에 실어 보내려 하므로, 구름에는 화자의 억울함과 원망을 임의 공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상상적 가능성이 부여된다.

[오답 피하기]

- ① ㉠과 ㉡이 모두 높은 공간과 관련한다는 점은 적절하다. 그러나 ㉡의 높은 나무는 화자가 임에게 가까워지는 통로가 아니라 임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위기를 심화하는 공간이다. ㉢의 구름도 화자의 원류를 옮기는 상상적 매개일 뿐, 화자와 임 사이의 현실적 거리를 실제로 해소하지는 않는다.
- ② ㉠의 높은 나무가 타인의 권유로 인해 화자에게 부과된 위험한 위치라는 점은 적절하다. 그러나 ㉢은 임의 응답을 화자에게 되돌려 주는 통로가 아니다. 구름은 화자가 있는 곳에서 임이 있는 곳으로 화자의 원류를 전달하기 위해 설정된 자연물이다.
- ③ ㉠을 통해 화자가 죽음 자체보다 임과 단절되는 일을 더 두려워한다는 점은 적절하다. 그러나 (다)에서 임의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은 화자 자신이 아니라 구름에 실린 원류이다. 화자는 유배지로 향하는 현실에 머문 채 구름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과 원망을 임에게 전달하려 한다.
- ⑤ ㉢은 화자가 놓인 위태로운 정치적 처지를 드러내고, ㉤은 화자의 원류를 임에게 전달할 가능성을 마련한다. 그러나 높은 나무나 구름이 화자와 임 사이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두 작품 모두 관계의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다.

34. ①

[외적 준거를 활용한 작품 감상]

- ① <보기>에서는 선현과 관련된 장소가 학문적 전통이 후대에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 주며, 작가가 오랫동안 생활하고 직접 조성한 장소는 수양과 삶의 결실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가)에서 화자는 황강의 맑은 경관을 이이가 강학한 석담과 송시열이 강학한 파곡을 다시 보는 듯한 장소로 인식한다. 이는 황강을 과거 강학처의 단순한 모방물로 낮춘 것이 아니라, 선현의 강학 전통을 현재의 황강과 연결하여 그 공간의 학문적·문화적 의미를 높인 것이다.

또한 황강에는 그 자체의 경관과 현재의 학문적 삶이 함께 제시된다. 따라서 황강이 과거 강학처의 모방에 머물러 독자성을 얻지 못했다는 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② (가)에서는 현재 울려 퍼지는 현송이 옛 서재인 구재를 이었다고 하고, 현재의 추월 정강을 ‘어제론 듯’하다고 표현한다. 이는 권상하가 강학하던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황강을 연결하여, 과거의 강학 전통이 현재의 경관과 후대의 학문적 삶 속에서도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③ ‘금서 사십 년’은 화자가 황강의 자연 속에서 오랫동안 거문고와 서책을 가까이하며 학문적 삶을 지속해 왔음을 나타낸다. ‘일실 쌍정’은 작가가 직접 조성한 거연재와 만풍각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시구들은 화자가 오랫동안 이어 온 수양과 학문적 삶, 그리고 자신이 직접 마련한 생활 공간이 구체적인 삶의 결실로 남았음을 보여 준다.
- ④ (나)의 높은 나무는 화자가 타인의 모함으로 인해 놓이게 된 위태로운 정치적 처지를 공간적으로 형상화한다. (다)의 높은 고개는 유배지로 향하는 화자가 넘어야 하는 험준한 공간이고, 깊숙한 궁궐은 임이 있는 곳이다. 따라서 두 공간은 화자와 임의 서로 다른 처지와 화자에게 부과된 정치적 위험 및 공간적 거리를 가시화한다.
- ⑤ (다)의 구름은 화자의 원통한 눈물을 비로 삼아 임이 있는 구중심처로 옮기기 위한 상상적 매개이다. 그러나 ‘뿌려 볼까 하노라’는 화자의 소망을 나타낼 뿐, 구름으로 인해 화자와 임 사이의 현실적 거리가 실제로 사라졌거나 화자의 억울함과 원망이 임에게 전달되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